

제 1 교시

고전 산문 영역

성명		수험 번호																		
----	--	-------	--	--	--	--	--	--	--	--	--	--	--	--	--	--	--	--	--	--

[1~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도미(都彌)는 백제인이었다. 비록 벽촌의 보잘것없는 백성이지만 자못 의리를 알며 그 아내는 아름답고도 절개가 있어, 당시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 개루왕이 듣고 도미를 불러 말하기를 “무릇 부인의 덕은 정결이 제일이지만, 만일 어둡고 사람이 없는 곳에서 좋은 말로 꾀면 마음을 움직이지 않을 사람이 드물 것이다.” 하니, 대답하기를 “사람의 정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의 아내 같은 사람은 죽더라도 마음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였다. 왕이 이를 시험하려고 일이 있다 하여 도미를 머물게 하고, 가까운 신하 한 사람에게 왕의 의복과 말·종자를 빌려주어 밤에 그 집에 가게 했는데, 먼저 사람을 시켜 왕이 온다고 알렸다. 가짜왕이 와서 그 부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래전부터 너의 아름다움을 듣고 도미와 내기 장기를 두어 이겼다. 내일은 너를 데려다 궁녀로 삼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어지러이 굴려고 하였다. 부인이 말하기를 “국왕에게 명령된 말이 없습니다. 내가 감히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청컨대 대왕께서는 먼저 방으로 들어가소서. 내가 옷을 고쳐 입고 들어가겠습니다.” 하고 물러와 한 ㉠여종을 단장시켜 들어가 수청을 들게 하였다.

후에 개루왕이 속은 것을 알고 크게 노하여 도미를 죄로 얹어 두 눈동자를 빼고 사람을 시켜 끌어내어 작은 배에 싣고 물위에 띄워 보냈다. 그리고 그 부인을 억지로 불러들였는데, 부인이 “지금 남편을 잃어버렸으니 혼자 살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대왕을 모시게 되었으니 어찌 감히 어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몸이 좋지 않으니 다른 날 깨끗이 ㉡목욕하고 오겠습니다.” 하니, 왕이 믿고 허락하였다. 부인은 바로 도망하여 강어귀에 이르렀으나 건너갈 수가 없어 하늘을 부르며 통곡하는 중 홀연히 한 척의 ㉢배가 물결을 따라 오는 것을 보았다. 그 배를 타고 천성도(泉城島)에 이르러 그 남편을 만났는데 아직 죽지 아니하였다. 풀뿌리를 캐어 먹으며 드디어 함께 배를 타고 고구려 산산(蒜山) 아래에 이르니, 고구려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며 음식과 옷을 주어 구차스럽게 살면서 객지에서 일생을 마쳤다.

- 작자 미상, 「도미(都彌) 설화」

(나)

설씨녀는 울리(栗里)의 평민 여성이다. 비록 한미하고 고단한 집안이지만, 용모가 단정하고 마음과 행실이 의젓하였다. 보는 이들이 그 아름다움에 반하지 않는 이가 없었지만 감히 범접하지 못하였다. 진평왕때에 그 아버지의 나이가 많

은데도 정곡(正谷)에서 수자리* 살 차례가 되었는데, 딸은 아버지가 노쇠하고 병들었으므로 차마 멀리 떠나보낼 수 없고, 또 여자의 몸이라 대신해 갈 수도 없어, 극심하게 변민하기만 하였다. 이때 사랑부(沙梁部)의 젊은이 가실(嘉實)이 비록 가난하고 궁핍하나 마음가짐은 곧은 남자로서, 일찍부터 마음속으로 설씨녀의 아름다움을 좋아하면서도 감히 말하지 못하였다. 설씨녀가 아버지가 늙어 종군하게 된 일을 근심한다는 말을 듣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한낱 용렬한 남자이지만 일찍부터 의지와 기개로써 자처하여 왔으니, 불초한 몸으로 아버님 일을 대신하기를 원한다.”라고 하였다. 설씨녀가 매우 기뻐하여 들어가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아버지가 이끌어 말하기를 “그대가 이 노인을 대신하여 가려 한다 하니 기쁘고도 송구스러운 마음 금할수가 없다. 무엇으로 갚을까 생각하는데, 만일 그대가 나의 어린 딸을 어리석고 누추하다 하여 버리지 않는다면 아내로 삼아 그대를 받게 하고 싶다.”라고 하니, 가실이 두 번 절하고 “감히 청할 수 없는 일이거늘, 진정으로 바라는 바입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가실이 물러 나와 혼인할 기약을 청하니 설씨녀가 말하기를 “혼인은 인간의 윤리라 창졸간에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내가 마음으로 허락한 이상 죽어도 변하지는 않겠으니, 그대가 수자리 살러 갔다가 교대하여 돌아온 후에, 날을 받아 성례하여도 늦지 않겠습니다.” 하고, ㉣거울을 가져다 절반씩 나누어 각기 한 조각씩을 가지며 말하기를 “이것으로 신표를 삼는 것이니 후일에 합하여 봅시다.”라고 하였다. 가실은 말 한 필을 가지고 있었는데, 설씨녀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천하의 좋은 말이니, 후에 반드시 쓸 때가 있을 것이오. 지금 내가 간 뒤에 이 말을 기를 사람이 없으니 간직해 두었다가 소용이 되게 하시오.” 하고 작별하고 떠났다.

그런데 마침 나라에는 사유가 있어 군사들을 교대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가실은 6년이 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르기를 “처음에 3년으로 기약을 하였는데, 지금 기한이 넘었으니 다른 집으로 시집가야 하겠다.”라고 하였다. 설씨녀가 “예전에 아버지를 편안케 하기 위하여 가실과 굳게 약속하였고, 가실도 그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종군하여 여러 해 동안 배고픔과 추위를 견디고 있습니다. 하물며 국경에 바짝 가 있어 손에 병기를 놓지 않고, 범의 아가리에 가까이 있는 것처럼 언제나 물릴까 두려워하고 있는데, 신의를 저버리고 식언하는 것이 어찌 인정이겠습니까? 아버지의 명령은 감히 끝까지 따르지 못하겠사오니 다시 말씀하지 마십시오.”라고 하였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자신이 늙고 딸이 장성했지만 배필이 없다고 하여, 억지로 시집을 보내려 하여 비밀히 마을 사람과 혼인을 약속하였다. 이미 날을 정하여 그 사람을 맞아들이니, 설씨녀는 굳게 거절하고 몰래 ㉤도망하려고

하였으나 이루지 못하였다. 마구간에 가서 가실이 두고 간 ㉠ 말을 보고 크게 한숨 쉬고 눈물을 흘렸다. 이때에 가실이 교대되어 왔는데 뼈만 남도록 마르고 옷이 남루하여 집안사람들도 모르고 다른 사람이라고 하였다. 가실이 바로 앞에다 쪼개진 거울을 던지니, 설씨녀가 받아 가지고 소리 내어 울었으며, 아버지와 집안사람들도 모두 기뻐하였다. 마침내 다른 날을 정하여 혼인하고 일생을 해로하였다.

- 작자 미상, 「설씨녀(薛氏女) 설화」

*수자리: 국경을 지키는 일이나 그 일을 하는 병사를 이르던 말.

1. (가)와 (나)의 인물에 대해 평가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 도미의 부인은 남편에 대한 정절을, (나)에서 설씨녀는 국가에 대한 충성을 지키기 위해 애썼다.
- ② (가)에서 도미는 부인의 마음을 끝까지 믿었지만, (나)에서 가실은 설씨녀의 마음을 때로는 의심하였다.
- ③ (가)에서 도미의 부인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나)에서 설씨녀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
- ④ (가)에서 도미는 권력 앞에서 자신의 사랑을 포기했지만, (나)에서 가실은 자신의 사랑을 쟁취하기 위해 스스로 어려움을 떠맡았다.
- ⑤ (가)에서 왕은 도미와 그의 부인의 결합을 반대했지만, (나)에서 설씨녀의 아버지는 설씨녀와 가실의 결합을 위해 끝까지 협력하였다.

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과 ㉡은 모두 도미의 부인이 강압을 회피하는 수단이 되었다.
- ② ㉠은 도미의 부인을 위해, ㉢은 설씨녀를 위해 희생하는 존재였다.
- ③ ㉡은 도미의 부인이 댄 핑계이고, ㉢은 설씨녀가 행동으로 옮기고자 했던 계획이다.
- ④ ㉡은 도미와 그의 부인의 재회에, ㉢은 설씨녀와 가실의 재회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 ⑤ ㉡과 ㉢은 모두 설씨녀와 가실이 앞날을 기약하며 상대방에게 전해 준 것이다.

3. <보기>의 선생님의 요청에 대한 학생의 대답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사회적 약자 문제나 부당한 권력의 횡포 등과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요, 문학은 현재 우리 공동체가 어떤 문제들을 안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둘러싼 다양한 생각을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매개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도미 설화」와 「설씨녀 설화」에서 당대 사회의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 ① (가)에서는 권력을 이용하여 남의 아내를 강제로 빼앗으려는 개루왕의 모습에서 백성들에게 고통을 주는 부당한 권력의 횡포가 존재했음을 알 수 있어요.
- ② (가)에서는 자신 대신 왕의 수청을 들라는 도미 부인의 명령을 따르는 여종의 모습에서 신분의 차이가 백성의 삶을 좌우하는 요인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 ③ (가)에서는 고구려 땅에서 구차스럽게 살면서 일생을 마친 도미와 그의 부인의 모습에서 백성들 개인의 삶이 국가 권력 간의 갈등에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어요.
- ④ (나)에서는 설씨녀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을 사람과의 혼인이 진행되는 모습에서 집안일을 결정할 때 당사자 개인의 생각보다 가부장적인 권위가 우선시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 ⑤ (나)에서는 노쇠하고 병들었음에도 수자리를 살아야 하는 아버지를 걱정하는 설씨녀의 모습에서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부과되는 국가에 대한 의무가 백성들에게 큰 부담이 되었음을 알 수 있어요.

[4~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화왕(花王)이 처음 이 세상에 왔다. 모란이었다. 향기로운 동산에 심고 푸른 휘장으로 둘러치고선 임금님으로 받들어 모셨다.

바야흐로 따스한 봄이 돌아왔다. 온갖 꽃들이 피어나고 있었다. 화왕은 곱고 탐스러운 꽃을 피웠다. 꽃 중의 꽃으로 빼어나게 아름다웠다.

멀고 가까운 곳에서 여러 가지 꽃들이 다투어 화왕을 뵈러 왔다. 깊고 그윽한 골짜기의 맑은 정기를 타고난 탐스러운 꽃들과 양지바른 동산에서 싱그러운 향기를 맡으며 피어난 꽃들이 앞을 다투어 모여들었다.

문득 한 가인이 앞으로 나왔다. 붉은 얼굴과 옥 같은 이에 신선하고 탐스러운 감색 나들이옷을 차려입고, 방랑하는 무희처럼 얌전하게 걸어 나왔다. 가인은 임금에게 아뢰었다.

“이 몸은 설백(雪白)의 모래사장을 밟고, 거울같이 맑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라났습니다. 봄비가 내리면 목욕하여 몸의 먼지를 씻고, 상쾌하고 맑은 바람 속에 유유자적(悠悠自適)하면서 지냈습니다. 이름은 장미(薔薇)라 하옵니다. 전하의 높으신 덕을 듣자 읊고, 꽃다운 침소에 그윽한 향기를 더하여 모시고자 찾아왔습니다. 전하께서 이 몸을 받아 주실는지요?”

이때, 베옷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손에는 지팡이, 머리에는 백발을 인 장부 하나가 둔중한 걸음으로 나와 공손히 허리를 굽혔다.

“이 몸은 서울 밖 한길 옆에 사는 늙은이로서 이름은 백두옹(白頭翁)이라 하옵니다. 아래로는 창망한 들판

을 내려다보고 위로는 우뚝 솟은 산 경치를 의지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건대, 좌우에서 보살피는 신하는 고량진미(膏粱珍味)와 향기로운 차와 술로 수라상을 받들어 전하의 식성을 흠족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또한 저장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보자기를 풀어, 좋은 약으로는 전하의 양기를 돕고 나쁜 돌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전하의 몸에 있는 독을 제거해 올려야 할 줄 아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비록 명주나 삼베가 있어도 **군자 된 자**는 거적이나 띠풀이라고 해서 버리는 일이 없고, 부족에 대비하지 않음이 없다.’ 하옵니다. 전하께서도 이러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한 신하가 아뢰었다.

“두 사람이 왔사온데, 전하께서는 누구를 취하고 누구를 버리시겠습니까?”

화왕이 입을 열었다.

“장부의 말이 도리가 있긴 하나 가인은 언기 어려우니 어찌 할꼬?”

장부가 앞으로 나와 입을 열었다.

“제가 온 것은 전하의 총명이 모든 사리를 잘 판단한다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오나 지금 뵈오니 그렇지 않으시군요. 대체로 임금 된 자로서 간사하고 아침하는 자를 가까이하지 않고 정직한 자를 멀리하지 않는 이는 드뭅니다. 그래서 맹자(孟子)는 불우한 가운데 일생을 마쳤고, 풍당(馮唐)은 낭관으로 파문혀 머리가 백발이 되었습니다. 예부터 이러하오니 전들 어찌 하오리까.”

화왕은 비로소 깨달은 듯 말했다.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다”

- 설총, 「화왕계(花王戒)」

(나)

영천(永川)의 토질은 대나무가 자라기에 적합하여, 민가에서는 대를 심어 가꾸기도 하고 울타리를 만들기도 한다. 온 고을이 다 그러하나 그들은 대나무의 본성을 진실로 깊이 알지는 못할 것이다.

전 장관 **김영지**는 사족(士族)으로 본래 대나무를 사랑하였다. ①해직한 뒤로부터 고향에 물러앉아 남이 알아주는 것을 바라지 않고, 이수(伊守)의 남쪽에 터를 잡아 침실 동쪽에 정자를 짓고

대를 곁에 심었다. 그리고 그것을 편안히 쉬는 거처로 정함과 동시에 그 이름을 ‘죽헌(竹軒)’이라 하였다.

무릇 대나무란 **네 계절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온갖 초목 가운데 홀로 특색을 보존한다. 그 곧은 것은 능히 풍속을 고칠 만하고 그 **견장한** 것은 능히 나약함을 일으켜 세울 만하다. 겨울에는 눈 속에서 그 차가운 소리가 창에 뿌리고, 여름에는 바람 속에서 서늘한 기운이榻 자리에 가득하다.

②연기와 아지랑이가 자욱하여 소상강이 눈앞에 있는 것과 같고, 별과 달이 비치고 빛나서 상쾌한 것은 마치 선경이 사람의 정신을 융화하게 하는 것 같다. ③시를 읊으면 흥취가 더욱 더해지고 귀한 손님을 대하면 오가는 말소리가 따라서 맑아지니, 이것이 다 누각 죽헌의 공이다.

세상이 오얏과 연꽃을 봄과 여름의 구경거리로 삼고, 국화나 매화를 가을과 겨울의 완상으로 삼지만 간혹 대나무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러나 오얏과 연꽃은 부귀한 사람에게 어울리고, 국화나 매화는 똑같이 풍월을 읊는 데에 소중할 따름이다. 대나무는 곧고 화사하지 않으며 **고고하여 속되지 않다**. 또한, 추우나 더우나 한결같은 **절개로** 예나 지금이나 같은 빛이다.

세상 사람은 대개 위와 같이 이것들의 ④자태의 곱고 아름다움과 이슬에 젖은 꽃망울의 향기만을 사랑하여, 자기도 모르게 사치할 마음과 간사한 뜻이 생겨 방탕하고 음란함에 빠지는 줄을 알지 못한다.

아, 대나무는 그렇지 않다. 대나무를 보면 야비하고 인색한 마음이 없어진다. 대나무의 덕성을 본받으면 **선비의** 행실이 **다듬어진다**. 비나 이슬은 그 화려함을 대나무에 보태 주지 못하고, 바람과 서리는 대나무의 절개를 바꾸지 못한다.

다만 대나무에는 붉은색의 현란함과 향기가 없는 까닭에, 이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다**. 비유하자면 소인이 사람을 대할 때면 그 안색을 갖추고 그 언어를 비위에 맞게 하여 대하므로 아부하는 자가 많은 반면에, 군자가 사람을 대할 때는 의관을 바르게 하고 바라보는 것을 높게 하면서 점잖기 때문에 **따르는 자가 적은** 것과 같다. 이로 보아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이 적은 것도 당연하다.

⑤지금 **김 군**이 홀로 대나무를 사랑하여 이를 정원에 심고, 밤낮으로 대하며 성정을 가꾸고 더러운 것을 씻고 있다. 따라서 그 가슴속의 맑고 더러움은 진실로 이미 구별되었을 것이다.

그가 대나무의 절개를 본받아 임금을 섬기면 **그 충성은 변하지 않고**, 아버이를 섬기면 **그 효도가 변하지 않을** 것이니, 나는 그의 이런 점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다.

나는 **남쪽으로 귀양살이를 갔을 때**, 운 좋게 그 누각을 한번 가서 보고, **김 군의 삶을 고상하게** 여겼었다. 이 때문에 나는 내 글이 졸렬함에도 불구하고 이 글을 지어 그 누각에 걸게 하려 한다.

- 유방선, 「김 장관 댁 죽헌기(金場官宅竹軒記)」

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현실적 인물을 사건에 개입시켜 인물 간의 갈등을 중재하고 있다.
- ② 등장인물에 대한 외양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 ③ 공간적 배경에 대해 감각적으로 묘사하여 인물의 감정 변화를 보여 주고 있다.
- ④ 대조적인 성격을 지닌 소재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자연물에 대해 작중 인물들이 가진 다양한 관점들을 절충하여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5. (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왕은 백두옹과 장미 사이의 선택을 두고 망설이지 않고 장미를 선택한다.
- ② 화왕은 신하와 백두옹의 거둬되는 충고로 말미암아 자신의 생각을 반성한다.
- ③ 장미는 자신의 성장 환경과 정갈한 모습을 내세워 화왕의 마음을 얻으려 한다.
- ④ 백두옹은 자신을 돋보이게 할 목적으로 장미가 무지하다는 점을 들어 폄하한다.
- ⑤ 백두옹은 화왕에 대해 기존에 들어서 알고 있던 바와 동일하게 화왕을 평가한다.

6.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전통적인 글쓰기에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사실이나 사물에 대한 글쓴이의 경험과 사색을 독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글쓰기는 특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라고 해도 독자들에게 교훈을 주거나 그들을 설득하려는 의도를 전제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글쓴이는 교훈의 전달과 설득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글쓰기 방법을 동원하게 된다. 가령 과거의 의미 있는 인물과 관련된 역사적 사실이나 어떤 유래가 얽혀 있는 말을 인용하거나 비유적인 수사를 빈번하게 사용하는 등과 같은 방법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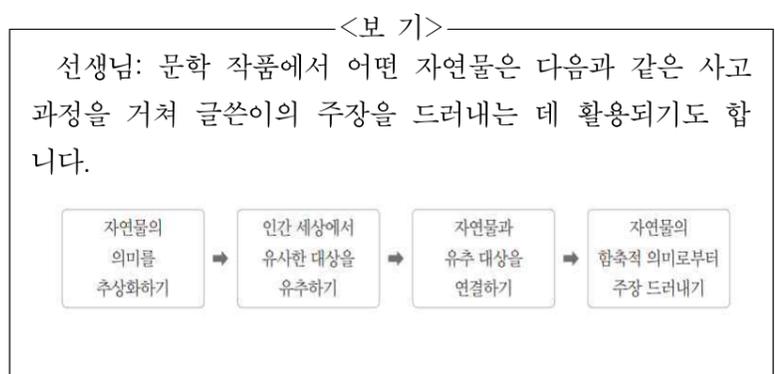
- ① (가)에서 ‘군자 된 자’가 지켜야 할 덕목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교훈적인 성격을 띤 글쓰기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 ② (가)에서 ‘맹자’, ‘풍당’과 같은 과거의 의미 있는 인물들이 한 말을 직접 인용하여 설득의 효과를 높이고 있음을 찾을 수 있다.

- ③ (가)에서 ‘임금 된 자’의 도리를 밝혀 과오를 경계하기 위해 꽃을 의인화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비유적인 수사를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나)에서 ‘나’가 ‘남쪽으로 귀양살이를 갔을 때’ 김 군의 ‘죽헌’을 방문한 사실을 밝힌 것으로부터 직접 경험한 일을 전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⑤ (나)에서 ‘나’는 ‘김 군의 삶을 고상하게 여겨서 그 뜻을 글로 지어서 누각에 걸기 위함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7. ㉠~㉣에 대해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김영지’에 대한 글쓴이의 안타까움과 동정이 드러나 있다.
- ② ㉡: 글쓴이가 상상력을 동원하여 대상의 아름다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글쓴이가 ‘김영지’가 지은 죽헌에 대해 칭찬하며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④ ㉣: 외적인 화려함을 추구하는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경계가 나타나 있다.
- ⑤ ㉣: 글쓴이가 ‘김영지’의 행위를 바탕으로 하여 그의 고결한 성품을 짐작하고 있다.

8. <보기>를 바탕으로 (나)의 ‘대나무’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나무의 ‘네 계절을 통하여 변하지 않고’ ‘곧’고 ‘건장한’ 속성은 ‘절개’의 의미로 추상화되고 있다.
- ② 대나무가 ‘고고하여 속되지 않’은 모습은 인간 세상에서 ‘다듬어지지 않은’ ‘선비’의 모습과 유사하다.
- ③ 대나무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적’은 이유로부터 군자를 ‘따르는 자가 적은’ 이유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
- ④ 대나무를 사랑하는 ‘김 군’의 삶은 곧 대나무가 가진 ‘절개를 본받’고자 하는 삶의 태도와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 ⑤ 대나무와 같이 ‘임금을 섬기면 그 충성은 변하지 않고, 어버이를 섬기면 그 효도가 변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타나 있다.

[9~1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국순(麴醇)의 자(字)는 자후(子厚)다. 그의 선조는 농서(隴西) 지역 출신이다. 국순의 90대 조상인 모(牟)는 후직(后稷)을 도와서 많은 사람들이 밥을 먹도록 한 공로가 있었다. 『시경(詩經)』에서 “우리에게 밀과 보리를 주었구나.”라고 한 구절은 ㉠이러한 사실을 말하는 것이다. 모는 처음에는 숨어서 벼슬하지 않고서 “나는 반드시 농사를 지어 먹고살 것이다.”라고 하면서 시골에서 살았다. 뒷날 임금이 모의 소문을 듣고, 조서를 내려 안거(安車)*를 보내 모를 불렀다. 그리고 임금이 지방에 명령을 내려 모가 가는 곳마다 후하게 예물을 보내도록 하고,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모의 집을 방문하도록 했다. 그러자 모는 사람들의 귀천을 가리지 않고 친분을 맺었으며, 자신의 뛰어난 능력을 감추고 사람들과 뒤섞여 살았다. 이에 훈훈한 기운이 사람들에게 점점 스며들면서 사람들의 마음이 넓어지고 온전해지는 아름다움이 있었다. 그러자 모는 기뻐하면서 “나를 완성하는 것은 벗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정말 옳구나.”라고 말했다. 점점 모의 맑은 덕이 알려지면서, 임금님이 모의 마을에 정문(旌門)을 세워 주었다. 그 뒤 모는 임금을 따라 환궁에서 제사를 지냈다. 임금은 그 공으로 모를 중산후(中山侯)로 책봉하고, 식읍(食邑) 1만 호와 식실봉(食實封) 5천 호를 내려 주었으며, 국씨(麴氏)라는 성을 하사했다.

모의 5세손은 성왕(成王)을 도와 국가에 충성하는 것을 자신의 임무로 삼아, 태평성대를 이룩했다. 그러나 강왕(康王)이 즉위한 뒤, 모의 5세손을 홀대하여 벼슬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 결과 모의 5세손의 후손들 중에서 유명한 사람이 없어졌고, ㉡모두 민간에 숨어 살게 되었다.

(중략)

순(醇)의 재주와 도량이 크고 깊으며 넓기가 만경창파(萬頃蒼波)와 같아, 맑게 하려 해도 맑아지지 않고 흔들어도 흐려지지 않았다. 그리하여 그의 풍류적인 성격은 한 시대를 기울게 했고, 사람들에게 기운을 매우 더해 주었다. 순이 섭법사(藥法師)*에게 나아가 하루 종일 담론을 했는데,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을 모두 즐도하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순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되니, 사람들이 순을 국처사(麴處士)라 했다. 공경대부, 신선, 방사(方士)로부터 머슴, 목동, 오랑캐, 외국인까지 순의 향기와 이름을 마신 사람은 모두 순을 사모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매번 성대하게 모일 때마다 순이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모두 근심하여 “국처사가 없으면 즐겁지 않다.”라고 말했으니, 사람들이 순을 사랑하는 것이 이와 같았다.

태위 ㉢산도(山濤)*가 물건을 감식하는 능력이 있었는데, 일찍이 순을 보고 “어떤 늙은 할미가 이렇게 훌륭한 아이를 낳았는가? 천하 사람들을 장차 잘못되게 할 사람은 바로 이 아이가 틀림없다.”라고 했다. 공부(公俯)에서 순을 불러 청주

종사(青州從事)*로 임명했으나, 위가 막히기 때문에 담당할 수 있는 것이 못 되었다. 그리하여 평원독우(平原督郵)*로 벼슬을 고쳤다. 순이 오래 있다가 한탄하기를, ㉣“내가 닷 되의 쌀 때문에 허리를 굽혀 시골의 어린아이에게 향하지 않을 것이며, 마땅히 술 단지와 도마 사이에 서서 담론할 뿐이다.”라고 했다. 그때 ㉤관상을 잘 보는 어떤 사람이 순에게 “그대는 붉은 기운이 얼굴에 있으니 뒤에 반드시 귀하게 되어 천종록(千鐘祿)을 누릴 것이다. 마땅히 기다려 좋은 값에 팔라.”라고 말했다.

진(陳)나라 후주(後主) 때에 좋은 집의 자식들을 주객원외랑(主客員外郎)으로 임명했다. 당시 임금이 순의 사람됨을 남다르게 여겨, 장차 순을 크게 쓸 뜻이 있었다. 그리하여 금으로 사발을 덮어 순을 선발해 광록대부(光祿大夫) 예빈경(禮賓卿)에 임명하고 작(爵)*을 올려 공(公)으로 삼았다. 무릇 임금과 신하들이 회의를 할 때마다, 임금이 반드시 순으로 하여금 그것을 짐작하도록 했다. 순이 나아가고 물러나고 응대하는 것이 조용히 뜻에 맞으니, 임금이 순의 의견을 널리 수용하면서, “경이 말하는 것은 모두 곧고 맑아, 내 마음을 열어 주고 내 마음을 풍부하게 해 주는구려.”라고 했다. 순이 권력을 잡은 뒤 어진 사람과 사귀고 손님을 접대하고 늙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주었으며, 귀신에게 제사 지내고 종묘에 제사 지낼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임금이 저녁에 연회를 베풀면서 순과 궁인(宮人)들만 참석하게 하고, 비록 가까운 신하라도 참석하지 못하게 했다. 이로부터 임금이 주사에 빠지고 정치를 돌보지 않았다. 그러자 순은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았다. 그리하여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순을 원수처럼 미워했지만, 임금이 매번 순을 보호했다. 순이 세금을 거두는 것을 좋아하고 재산을 모으는 데 힘을 쓰니, 당시의 여론들이 순을 비천하다고 했다. 임금이 순에게 “그대는 어떤 버릇이 있는가?”라고 물으니, 순은 “옛날에 두예(杜預)는 『좌전(左傳)』에 심취하는 버릇이 있었고, 왕제(王濟)는 말[馬]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었으며, 저는 돈에 몰두하는 버릇이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임금이 크게 웃으면서 순을 더욱 마음에 두었다.

일찍이 순이 임금의 면전에서 보고를 했는데, 순은 평소에 입내가 있었다. 임금이 그것을 싫어해 순에게 “그대는 나이가 많고 기운이 고갈되어 나의 쓰임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했다. 그러자 순은 관(冠)을 벗고 사죄하기를 “제가 받은 관직을 사양하지 않으면 임금님을 속이게 될까 두렵습니다. 바라건대 제가 관직을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가도록 허락하셔서 제가 만족한 상태에서 그만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다. ㉥임금이 좌우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순을 부축해서 나가도록 했다. 순은 집으로 돌아온 뒤, 갑자기 병이 생겨서 그날 저녁에 죽었다.

순은 아들은 없었고, 친척 동생인 청(淸)이 당나라에서 벼슬하여 관직이 내공봉(內供奉)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그의 자손이 중국에서 다시 번성하게 되었다.

사신(史臣)은 다음과 같이 논평한다. “국씨의 선조는 백성들에게 공이 있었고, 청렴결백을 자손들에게 남겼다. 예를 들어 창(甞)*은 주나라에서 아름다운 덕을 하늘에 이르도록 했으니, 할아버지의 풍도가 있었다. 그러나 순은 괘병(愬瓶)의 지혜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일찍 금 그릇의 선거에 뽑혀 ㉠술 단지와 도마에 서서 답론하면서도, 임금에게 옳은 말을 하여 잘못을 바로잡고 잘못된 것을 폐지하도록 하지도 않았으니, 그로 인해 왕실이 혼란해지고 었어져도 붙잡지 못하여 마침내 천하의 웃음거리를 만들었다. 거원(巨源)의 말이 정말 믿을 만하구나.”

- 임춘, 「국순전(麴醇傳)」

*안거: 노약자나 부녀자가 앉아서 타고 갈 수 있게 만든 수레.

*섭법사: 중국 당나라 때의 도사. 도술로 술독을 사람으로 변하게 한 뒤 같이 술을 마셨다고 함.

*산도: 중국 진(晉)나라 때의 학자·정치가. 죽림칠현(竹林七賢) 중 한 사람으로 자(字)는 거원(巨源)임.

*청주중사: 배꼽 밑까지 시원하게 넘어가는 좋은 술. ‘높은 벼슬’을 뜻함.

*평원독우: 명치 위에 머물러 술이 막히는 좋지 않은 술. ‘낮은 벼슬’을 뜻함.

*작: 중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사 때 쓰던 술잔.

*창: 제사의 강신(降神)에 사용하는 술.

9.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순의 선조가 백성들의 삶에 도움을 주었음을 보여 준다.
- ② ㉡: 외압으로 인해 모의 가문이 고난을 겪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 ③ ㉢: 순이 자신이 처한 상황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④ ㉣: 순이 벼슬에 대한 미련 때문에 임금의 명령에 따르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⑤ ㉤: 순이 조정에서 진출하여 임금 곁에서 머물렀음을 의미한다.

10. ㉠과 ㉢의 공통된 기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인물의 내적 갈등을 표출하도록 돕고 있다.
- ② 작중 상황의 긴장된 분위기를 이완시키고 있다.
- ③ 인물에 대한 생각을 반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 ④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여 사건의 전개에 사실성을 부여하고 있다.
- ⑤ 인물의 앞날을 예고하여 독자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예상하도록 하고 있다.

1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국순전」에는 작가인 임춘의 처지와 그가 세상에 대해 가졌던 불만이 드러나 있다. 임춘은 문장실력이 뛰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연이어 과거 급제에 실패하자, 숨어 살면서 술로 자신의 불우한 삶을 달랬다. 이 과정에서 그는 즐겨 마시는 술을 의인화하여 그 생애를 서술한 가전(假傳)을 창작하였고, 이를 통해 술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숨어 지내며 존경받는 것이 벼슬을 하다가 망하는 것보다 낫다는 자신의 처지에 대한 합리화, 당시의 부패한 정치 현실에 대한 비판 의식을 담아냈다.

- ① 임금이 술을 아끼게 된 이유를 통해 작가가 인지한 술의 긍정적인 기능이 드러나고 있다.
- ② 벼슬에 오른 순이 죽게 된 과정을 통해 벼슬을 하다 몰락한 사람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드러나고 있다.
- ③ 당시의 여론들에 개의치 않는 임금의 모습을 통해 사리분별이 밝지 못한 지도자로 인한 부패한 정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 ④ 거원의 말에 대해 동의를 표하는 사신의 논평을 통해 충언을 하지 못하는 신하에 대한 작가의 비판적 견해가 드러나고 있다.
- ⑤ 예법을 아는 선비들이 술에 대한 태도를 통해 그릇된 인재 등용 제도에 대해 침묵하는 당대 현실이 드러나고 있다.

[12~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북곽 선생은 마을에서 학식이 높기로 유명한 선비이나, 한밤중에 과부와 밀회를 하는 장면을 사람들에게 들킬 위기에 처한다. 때마침 범이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 마을로 내려온다.

북곽 선생은 몹시 놀라 뺑소니를 치면서도 남들이 자기를 알아볼까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다리를 들어 목에 걸치고는 귀신처럼 춤추고 귀신처럼 웃더니, ㉡대문을 나서자 줄달음치다가 그만 들판의 구덩이에 빠져 버렸다. 그 속에는 똥이 가득 차 있었다. 구덩이에서 기어 올라와 고개를 내놓고 바라보았더니, 범이 길을 막고 있었다.

범은 얼구를 찌푸리며 구역질을 하고, 코를 막고 고개를 왼쪽으로 돌리며 숨을 내쉬고는,

“선비는 구린내가 심하구나!”

하였다.

㉢북곽 선생이 머리를 조아리고 기어 와서, 세 번 절하고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들고는,

“㉣범의 덕이야말로 지극하다 하겠사옵습니다. 대인(大人)은 그 가족 무늬가 찬란하게 변하는 것을 본받고, 제왕은 그 걸음걸이를 배우며, 사람의 자식은 그 효성을 본받고, 장수는 그

위엄을 취하지요. 명성이 신령스러운 용과 나란히 드높아, 하나는 바람을 일으키고 하나는 구름을 일으키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그러자 범은 이렇게 꾸짖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예전에 듣기를 유(儒)는 유(誨)*라더니, 과연 그렇구나. 너는 평소에 천하의 못된 이름을 다 모아 함부로 나에게 갖다 붙이다가, 이제 급하니까 먼전에서 아침을 하니, 장차 누가 너를 신뢰하겠느냐?

무릇 천하의 이치란 한가지다. 범이 실로 악하다면, 사람의 본성도 악할 것이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면, 범의 본성도 선할 것이다.

네가 하는 수천수만 마디의 말들은 오름에서 벗어나지 않고, 네가 훈계하거나 권고하는 것도 항상 사강(四綱)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그런데도 도읍 일대에 형벌을 받아 코가 베였거나 발이 잘렸거나 얼굴에 자자(刺字)한 채 다니는 자들은 모두 오름을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다. 죄인을 묶는 굵은 동아줄과 처형할 때 쓰는 도끼나 톱을 날마다 쉴 새 없이 제공해도 저들의 악을 막을 수 없으나, 범의 집안에는 본래 이런 형벌이 없느니라. 이로써 보자면 범의 본성이 어찌 사람보다 낮지 않겠느냐?

범은 나무나 풀을 먹지 않고 벌레나 물고기를 먹지 않는다. 누룩으로 빚은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으며, 새끼를 배거나 알을 품은 하찮은 생물들에게 잔인하게 굴지도 않는다. 산에 들어가면 노루나 사슴을 사냥하고 들판에서는 말이나 소를 사냥하되, 한 번도 먹고사는 데 급급하거나 음식 때문에 남

[A] 과 다룬 적이 없다. 그러니 범의 도의야말로 어찌 광명정대하지 아니한가!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으면 너희는 범을 미워하지 않지만,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으면 사람들은 범을 ‘원수’라고 부른다. 이 어찌 노루나 사슴은 사람들에게 아무런 은혜가 없으나 말이나 소는 너희에게 공로가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

하지만 만약 말이나 소에게 수레를 끄는 노고와 주인을 사모하며 충성을 다하는 정성이 없으면, 날마다 도살하여 부엌을 가득 채우면서 쇠뿔이나 말의 갈기조차 남기지 않는다. 그런데도 마침내 또 나의 노루나 사슴까지 침탈하여, 내가 산에서도 먹을 것이 모자라고 들에서도 먹을 것이 없도록 만드니, 만약 하늘이 세상을 공평하게 다스리기로 한다면, 너를 잡아먹어야 되겠느냐, 아니면 놓아주어야 되겠느냐?

무릇 제 것이 아닌데도 가지는 것을 ‘도(盜)’라 부르고, 생물을 잔인하게 해치는 것을 ‘적(賊)’이라 부른다. 너희가 하는 짓이란 밤낮으로 허겁지겁하면서 팔을 휘두르고 눈을 부릅뜬 채 남의 것을 뺏아채고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이다. 심지어는 돈을 ‘형님’이라 부르거

나, 아내를 죽이고 장수 자리를 얻으니, 인륜 도덕을 다시 논할 수가 없을 지경이다. 그런 데다 또 황충(蝗蟲)에게서 먹을 것을 빼앗고, 누에한테서 옷을 빼앗으며, 벌을 물리치고 꿀을 빼앗는다.

범은 한 번도 표범을 잡아먹은 적이 없다. 이는 진실로 같은 무리에게 차마 하지 못할 짓이 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범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노루나 사슴을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범이 말이나 소를 잡아먹은 것을 헤아려 보아도, 사람들이 서로 잡아먹은 것처럼 많지는 않다.”

(중략)

북곽 선생은 경의를 표하기 위해 앉은자리에서 일어났다가 넘죽 엎드리고, 물러나면서 두 번 절하고 머리를 거듭 조아리면서,

“『맹자』에 아무리 추악하게 생긴 사람이라도 목욕재계하면 하느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는 말이 있사옵니다. 그러니 하계에 사는 이 천한 신하는 감히 그 아랫자리에서 모시고자 하옵니다.”

하였다.

이어서 숨을 죽이고 살며시 귀를 기울이고 있었지만, 한참 지나도 아무런 명령이 없었다. 실로 황공해하며 두 손 맞잡고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하고 나서 고개를 쳐들고 살펴보았더니, 동쪽이 흰히 밝았고 범은 이미 가 버리고 없었다.

[B] 아침에 발을 갈던 어떤 농부가, “선생님은 어째서 새벽부터 들에서 경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북곽 선생이 이렇게 말하였다.

“내 들었노라, ‘하늘이 어찌 높지 않으나 하지만 감히 몸을 굽히지 않을 수 없고 땅이 어찌 두텁지 않으나 하지만 감히 조심스레 건지 않을 수 없네.’라고 말이다.”

- 박지원, 「호질(虎叱)」

*유(誨): 아침할 유.

12.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을 알아볼까 봐 위장하는 것으로, 스스로의 행동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다.
- ② ㉡: 위기에서 벗어나려다가 실수하는 모습으로, 어리석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이다.
- ③ ㉢: 위기 상황에서 순간적으로 취하는 행동으로, 당황하여 판단력을 잃은 모습이다.
- ④ ㉣: 목숨을 구하기 위해 짐승의 덕을 과장하는 것으로, 물리적 힘 앞에 비겁한 모습이다.
- ⑤ ㉤: 살아남기 위해 거짓된 겸손을 보이는 것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아침하는 모습이다.

13.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A]에서 찾아 정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화(寓話)는 동식물이나 사물 등에 인간성을 부여하여 그들의 행동이나 말로써 인간 사회에 던지고자 하는 교훈을 전달합니다. 이 중 인간성을 부여받은 동물이 인간 사회를 비판하는 작품들에서는 ‘인간이 동물보다 우월하다.’라는 구도가 역전되어 동물이 인간보다 우월한 것으로 나타나고, 동물이 가진 특성들이 미덕으로 드러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윗글에서는 그런 구도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찾아봅시다.

- ① 음식을 두고 다투지 않는 범의 특성이 남들과 끊임없이 다투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 ② 먹을 것에 급급해하지 않는 범의 습성이 벌레에게서까지 먹을 것을 얻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 ③ 형벌의 제도가 없는 동물 사회의 모습이 형벌이 있어도 악행이 지속되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 ④ 술과 같이 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을 즐기지 않는 동물의 성질이 술을 담가 먹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 ⑤ 오륜과 사강을 지키지 않는 동물의 본성이 오륜과 사강에 대해 가르치고 전파하는 인간과 대조되는 미덕으로 드러나 있다.

14. [B]를 읽은 학생들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북곽 선생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의 학식을 자랑하려 하고 있군.
- ② 북곽 선생은 범의 말을 듣고 나서도 자신의 위선적 태도를 전혀 반성하지 않았군.
- ③ 농부의 등장으로 인해 사회적 체면을 중시하는 북곽 선생의 성격이 부각되고 있군.
- ④ 범이 가고 난 후 북곽 선생은 또다시 아침을 일삼는 변함 없는 면모를 보여 주고 있군.
- ⑤ 범이 있는 줄 알고 예를 갖추어 절하는 북곽 선생의 모습으로 웃음을 유발하고 있군.

15. 윗글의 ‘범’과 <보기>의 ‘계’의 말의 공통점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나는 계올시다. 지금 무장공자(無腸公子)라 하는 문제로 연설할 터인데, 무장공자라 하는 말은 창자 없는 물건이라 하는 말이니, 옛적에 포박자라 하는 사람이 우리 계의 죽속을 가리켜 무장공자라 하였으니 대단히 무례한 말이로다. 그래, 우리는 창자가 없고 사람들은 창자가 있소? 시방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옳은 창자 가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소? 사람의 창자는 참 썩고 흐리고 더럽소. 의복은 능라주의로 지르르 흐르게 잘 입어서 외양은 좋아도 다 가죽만 사람이지 그 속에는 똥밖에 아무것도 없소. 좋은 칼로 배를 가르고 그 속을 보면, 구린내가 물큰물큰 나오. 지금 어떤 나라 정부를 보면 깨끗한 창자라고는 아마 몇 개가 없으리다. 신문에 그렇게 나무라고, 사회에서 그렇게 시비하고, 백성이 그렇게 원망하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욕들을 하여도 모르는 체하니 이것이 창자 있는 사람들이오?”

- 안국선, 「금수회의록(禽獸會議錄)」

- ① 기존에 가졌던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단서를 질문을 통해 얻고자 한다.
- ② 인간이 자신들에 대해 내린 평가가 부당하다는 점을 질문을 통해 밝히고 있다.
- ③ 규범을 지키는 자신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해 주어야 함을 질문을 통해 역설하고 있다.
- ④ 선과 악을 가르치는 기준이 흔들리고 있는 인간들의 세태를 질문을 통해 일깨우고 있다.
- ⑤ 그간 받았던 부당한 대우에 대한 정당한 대가가 무엇인가를 질문을 통해 돌아보고 있다.

[16~1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벼슬에 오르지 못하고 시대를 한탄하며 지내던 선비 심의가 팔을 베고 잠이 들어 꿈속 세계로 들어가는데, 천자는 최치원, 수상은 을지문덕, 좌우상은 이규보와 이제현, 대제학은 이색, 각각의 관직도 유명한 문인들이 맡고 있는 왕국이였다. 심의 또한 천자의 총애를 받게 되어 금자광록대부와 벽부학사라는 관직을 맡게 된다.

황제가 변란을 듣고 매우 근심하여 거의 병이 될 지경이었다. 경내의 백성을 다 모으고 무기 창고의 무기를 다 꺼내어 친정을 하여 토벌하고자 했다. 대제학 이색이 비밀히 아뢰었다.

“바라옵건대 **벽부학사 심 아무개**를 보내어 순리를 거스른 행위를 깨우치게 하시면, 군사들이 피를 흘리지 않고도 스스로 그치게 할 것이니, 옥체를 수고롭게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천자가 재계하고 장대를 쌓고 나를 대장군에 임명하며 말씀하셨다.

“장군에게 몇만의 군사를 임의로 쓰게 하노라!”

나는 명을 듣고 무릎을 쳤으며, 충성심이 우뚝 솟아 나도 모르게 호언장담을 하였다.

“신은 무기관 상스럽지 못한 것이라고 들었기에 쓰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달밤에 휘파람으로 읊조리는 남모르는 방법이 있어 추운 겨울에 우리를 일으키고 더운 여름에 열음을 만들며, 짐승들을 거두어 회롱하고, 귀신을 삼키고 뱀을 수 있어, 앞서서 만 명의 적을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천자께서는 공경을 거느리고 북쪽 교외로 행차하여 길제사를 베풀어 전별하고는 비단 주머니 한 개를 꺼내어 그것을 차게 하시었다. 나는 감사하여 무릎을 꿇고 말하였다.

“전쟁은 신속한 것을 귀하게 여깁니다. 마땅히 난적을 바람이 불면 풀이 쏠리듯이 감화를 시킬 뿐입니다. 어찌 번거롭게 전쟁을 피하겠습니까!”

바로 그날 단기로 길을 떠났는데, 다만 **침두노*** 몇 명만 데리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갔다. 열흘이 채 못되어 적의 성채로 달려갔더니 무기가 햇빛에 번쩍이며 세 겹으로 에워싸고 있었다. 내가 기를 돋우어 입술을 벌리고 한 번 휘파람을 불었더니 적은 용기를 잃었고, 두 번 불었더니 만 명의 기병이 북쪽으로 달아났다. 휘파람 소리가 점점 멀어지자 채색 구름이 자욱하게 가리었고, 난새와 봉이 엇갈리어 날았으며, 바다와 산이 변색하고 천지가 떨리고 흔들렸다. 몇 되지 않은 모든 반적들은 바람에 쓰러지듯이 달아나고 흩어졌다. 적장 김시습은 두 손을 앞으로 묶고 투항하며 말했다.

“뜻밖에 사단(詞壇)*의 노장 심 공께서 오셨구려!”

나는 노포를 걸고 「**첩개가**」를 불렀다. 천자께서는 크게 기뻐하시고 상을 내리셨으며, 좌우를 돌아보며,

“옛날에 긴 휘파람으로 호기를 물리친 일이 있었거늘, 이제 경에게서 그것을 보았노라.”

하고는, 배식사문 경륜일시 진국공신의 호를 내리게 하고, 안동백에 봉했으며, 몇만의 큰 상을 내리시고 김시습을 폐하여 좌선을 삼았다.

이로부터 위명이 날로 드러나고 임금의 총애가 더욱 커서 매일 새벽에 출근하여 밤에 들어오며 마음을 다하여 나라의 은혜에 보답하였다. 벼슬한 지 10년에 아들을 낳고 손자를 길러 문벌이 빛났으며,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이 넘쳤다.** 공경 중에 누가 명함을 내고 보기를 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번번이

“신하 된 도리로 사사로이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는 읍하고 사양했다. 조정에 있으면 모든 일을 맡아보았고 시를 읊었다. 사치가 몸에 배었지만 나와 같이 청렴하고 검소한 사람이 여러 사람의 논란거리가 되겠는가. 나는 늘 우송상 이규보를 허물하여 대궐에가서 항소하기를.

[A]“이 아무개는 문장이 경솔부박하며 나약하고 뼈대가 없어, 비록 귀신처럼 날래지만 귀하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더니 천자께서 그 아뢰는 것이 옳다 하여 나에게 오거서(五車書)*를 내리고 영경연으로 특진을 시키시었다.

(중략)

며칠이 지나 낮 시강(侍講)*을 마치고, 천자께서 정색을 하고 불쾌한 표정으로 소차 하나를 보라고 하셨는데 바로 한림 선생이 나를 탄핵하는 상소문이었다.

[B]“심 모는 속세의 허물을 벗지 못하여 사사로운 욕심이 너무 지나칩니다. 나머지는 적지 않습니다.”

라고 하였다. 천자께서는,

“한때의 부질없는 논의를 어찌 마음에 두리오!”

하고는 **대관 선생**이란 호를 내리고 고향에 돌아가라고 하면서 손에 술잔을 잡고 [나에게] 주며 말씀하셨다.

“풀과 나무며 산과 강을 함부로 침범하지 마시오.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습니다.** 경의 첩 옥란은 다시 주식(酒食)을 맡게 되어 내 명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공은 옛날 직분으로 돌아가시오.”

나는 머리를 섬돌에 부딪치고 하직하였는데, 눈물이 옷을 적시었다. 집안 식구를 돌아보아 생각하니 차마 서로 떠날 수가 없었다. 조금 있으니 상국 이색이 등을 쓰다듬으며 험실로 피어 들어서 나를 난초 탕에 목욕시키고는 금 칼로 나의 오장육부를 갈라놓고 갈아 놓은 먹물 몇 말을 들어부으며 말했다.

“**40여 년을 기다리면 꼭 여기에 다시 돌아와 함께 부귀를 누릴 것이니 걱정하지 마시오.**”

배가 칼로 찌르는 듯이 아파 갑자기 깨니, 배가 북처럼 부풀어 올랐고, 잔등은 가물가물하는데 병든 아내가 곁에 누워 앓는 소리를 할 뿐이었다.

야! 사람이 세상에 나서 궁달(窮達)은 팔자소관이니 어찌 꿈을 깨는 자가 있을 것인가! 괴이쩍은 이야기를 드러내어 꿈에 겪었던 일을 적는다.

가정(嘉靖) 8년 12월 상한에 **심의는 대관재**에서 쓰다.

- 심의, 「대관재몽유록(大觀齋夢遊錄)」

*침두노: 여기서는 글을 쓰는 ‘붓’을 이룸.

*사단: 문인(文人)들의 사회. 문단.

*오거서: 다섯 수레에 실을 만한 책. 많은 장서.

*시강: 왕이나 동궁 앞에서 학문을 강의하던 일. 또는 그런 사람.

※ <보기>를 참고하여 16번과 17번 두 물음에 답하시오.

<보 기>

다음과 같이 현실 세계에 살던 주인공이 꿈을 통해 다른 세계로 들어갔다 돌아오는 구조를 흔히 환몽구조라고 한다.

이와 유사한 구조를 가진 소설 중 몽유록 소설은 대개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인다. 우선, 작가를 대변하는 서술자가 자신의 동일성과 의식을 유지한 채 꿈속 세계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 꿈속 세계에서 일련의 일을 겪은 이 서술자는 본래의 현실로 돌아와 자신의 체험을 전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때 ㉠몽유록 소설에서의 꿈은 작가의 바람이나 현실의 불만을 드러내는 수단이나 역사적 사건 또는 인물에 대한 주관적 판단을 제시하는 방법이 된다.

16.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의 '벽부학사 심 아무개'는 ㉢의 '심'의 '로 깨어난다는 점에서 작가가 자신의 동일성과 의식을 유지한 채 만들어 낸 주인공이라 할 수 있겠군.
- ② ㉡에서 '나'가 받은 '대관 선생'이라는 호는 ㉢의 '심'의 '가 꿈속 내용을 기록한 '대관재'와 연결된다는 점에서 현실 세계와 꿈속 세계의 관련성을 높이는 장치가 되겠군.
- ③ ㉡에서 '나'가 '많은 녹을 받아 집안 재산이 넘'치는 상황으로 그려진 것은 서술자가 현실 세계에서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투영된 것이겠군.
- ④ ㉡에서 '천자'가 '나'를 두고 '조물이 공을 꺼리는 것이 있'다고 말하는 것은 서술자의 삶이 ㉡~㉢ 모두 순탄하지만은 않음을 암시하는 장치가 되겠군.
- ⑤ ㉡에서 '40여 년을 기다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기대감을 표현한 것은 ㉢에 이른 서술자가 ㉡에서와 달리, 새로운 삶의 방식을 선택할 것임을 드러내는군.

17. 다음은 윗글의 인물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한 자료이다. 다음 자료와 ㉠을 관련지어 ㉡의 상황 설정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 천자(최치원): 통일 신라 말기의 문장가. 당나라 빈공과에 급제하였으며, 반란군 황소를 비판하는 '토황소격문'을 지어 이름을 높였다. 신라에 돌아온 후 가야산에 은거하여 종적을 감추었다.
- 이색: 고려 후기의 문신이자 학자. 고려의 멸망과 함께 은둔하였다.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고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하여 성리학의 발전에 커다란 발자취를 남겼다.
- 김시습: 조선 초의 문장가이자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 어려서부터 천재로 불렸으나, 세조가 왕위를 찬탈하자 비분강개하여 승려가 되어 전국을 유랑하며 일생을 보냈다.

- ① ㉡의 천자, 이색, 김시습 등은 서로 다른 시기에 실존했던 인물들이지만, 작가는 이상적 문인 왕국을 그려 내기 위해 동시대의 인물로 설정한 것이겠군.
- ② ㉡에서 심 아무개가 침두노(붓) 몇 명만 데리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설정한 것은, '토황소격문'을 지어 이름을 높였던 최치원의 일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기 때문이겠군.
- ③ ㉡에서 김시습의 투향을 받는 것이 매우 간단한 일로 표현된 것은, 어려서부터 천재로 불린 김시습의 능력이 대단한 것이 아니라는 작가의 주관적 판단이 투영된 것이겠군.
- ④ ㉡에서 이색을 심 아무개가 꿈을 깨는 것을 돕는 인물로 그려 낸 것은, 이제까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이색의 공적을 세상에 알리려는 작가의 의도 때문이겠군.
- ⑤ ㉡에서 최치원과 이색에게 높은 지위를 부여한 것은, 은둔하여 제 뜻을 펼치지 못한 인물들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진 상황을 작가가 그려 보고자 했기 때문이겠군.

18.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는 모두 누군가의 문제를 들추어내기 위해 쓴 것이다.
- ② [A]는 [B]와 달리 타인을 평가할 때 그의 문장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
- ③ [B]는 [A]와 달리 천자의 결심을 이끌어 내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
- ④ [A]가 인물에 대한 '나'의 평가라면, [B]는 '나'에 대한 타인의 평가이다.
- ⑤ [A]로 인해 '나'는 더 높은 벼슬을 얻지만, [B]로 인해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

[19~2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경기도 장단군에 사는 김 주부에게 매화라는 무 남독녀가 있었다. 조정의 간신들이 김 주부의 도술을 두려워하여 해치려고 하자 매화를 남장을 시켜 길거리에 두고 김 주부 내외는 구월산으로 들어간다. 부모를 잃은 매화는 연안골 성인동에 사는 조 병사 집 시비에게 발견되어 그 집 아들인 양유와 함께 글공부를 하면서 행복하게 자란다.

이때에 양유 매화를 찾아 학당으로 돌아오매 매화 눈물 흔적 있거늘 양유가 가로되,
 “그대 어찌하여 먼저 왔으며 슬픈 기색이 있느냐. 아마도 곡절이 있도다. 오늘 사람들이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 하니 그 일로 그러한가 싶으니 그럼 여자가 분명한가?”
 하더라. ㉠매화 혼연히 웃으며 가로되,
 “어린이 부모를 생각하니 어찌 아니 슬프리오. 또 내 몸이 여자면 여자로 밝히고 길쌈을 배울 것이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리오. ㉡본디 골격이 연연하매 지각없는 사람들이 여자라 하거니와, 일후 장성하여 골격이 웅장하면 장부 분명 하올지라.”
 하고 단정히 앉아 풍월을 읊으니 소리 웅장하여 호치(皓齒)를 들어 옥반(玉盤)을 치는 듯 진시 남자의 소리같은지라. ㉢양유 그 소리 들으며 남자가 분명하되 이향(異香)이 만당(滿堂)하여 다만 매화의 태도를 보고마음만 상황 따름일러라.
 이때는 놀기 좋은 춘삼월이라, 춘풍을 못 이겨 양유 매화를 데리고 경개(景概)를 따라 놀더니 서로 풍월지어 화답하매 매화 양유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양유는 먼저 봄빛을 얻었는데, 楊柳先得春
 매화는 어찌 즐겁지 아니하는고. 梅花何不樂

하였더라. 양유가 매화의 글을 받아 보니 하였으되,
 [B] 나비가 꽃을 알지 못하고, 胡蝶未知花
 원앙새가 물을 얻지 못하였도다. 鴛鴦不得水

하였거늘 이에 양유가 그 글을 받아 보고 크게 놀라 기뻐하여 가로되,
 “그대 행색이 다르기로 사랑하였더니 풍모가 정녕 여자로다. 그러하면 백년해로 어떠하뇨.”
 매화 고개를 숙이고 수색(愁色)이 만안하여* 가로되,
 “나는 과연 여자이거나 그대는 사부(士夫) 집 자제요, 나는 유리걸식하는 사람이라. 어찌 부부 되기 바라리오. 낸들 양지작을 모르리오마는 피차 부모의 명이 없삽고 또한 예절을 행치 못하면 문호에 욕이 되올 것이니 어찌 불효 짓을 하리오. ㉣부모의 명을 받아 백년해로한다면 낸들 아니 좋으리까.”

양유 희색이 만안하여 가로되,
 “그대 말이 당연하도다”
 마침 이때에 시비 옥란이 급히 와 여쭙오되,
 “외당에 상객*이 왔으며 생원님이 급히 찾나이다.”
 양유 매화를 데리고 외당으로 들어가매 과연 상객이 있는 지라. 병사가 가로되,
 “두 아이 상을 보라.”
 한대 상객이 가로되,
 “매화의 상을 보니 여자로서이다.”
 병사가 가로되,
 ㉤“그대 상을 잘못 보았도다. 어찌 여자라 하리오.”
 상객이 가로되,
 “여자가 남복을 입고 남을 속이려니와, 내 눈에 어찌 벗어 나리오.”
 매화 무릎하여 학당에 돌아가니라. 양유의 상을 보고 가로되,
 “내두(來頭)에 일국의 재상이 되었으되, 불쌍코 가련토다. 나이 16세 되면 호식(虎食)*할 상이오니 어찌 가련치 아니하리오.”
 병사가 크게 놀라 가로되,
 “어디서 미친놈이 상객이라 하고 왔도다.”
 하인을 불러 쫓아내라 한대 ㉥상객 일어나 두 걸음에 인홀 불견(因忽不見)*이거늘 실로 고이하여 살펴보니 상객 앉았던 자리에 한 봉서 놓였거늘 즉시 개탁(開拆)*하니 하였으되,
 ‘양유와 매화로 부부 아니 되면 임진 3월 초삼일에 필연 호식(虎食)하리라.’
 하였더라. 병사 견필(見畢)에 대경하여 무수히 슬퍼하다가 매화를 불러 가로되,
 ㉦“너를 보고 여자라 하니 실로 고이하도다.”
 하시고 무수히 슬퍼하시거늘 매화 두 번 절하고 가로되,
 “소녀 어찌 기망(欺罔)하오리까. 소녀 과연 여자로서이다. 일찍 부모를 이별하옵고 일신을 감출 길 없사와 남복을 입고 기망하였사오니 죄를 범하였나이다.”
 하거늘 병사 크게 놀라며 또한 크게 기뻐하여 더욱 사랑하여 가로되,
 ㉧“오늘부터 내당에 들어가 출입지 말라.”
 하시고 매화의 손을 이끌어 내당에 들어가 부인을 대하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어찌 사랑치 아니하리오. 행실을 가르치라.”
 하거늘 최 씨 부인이 크게 기뻐하여 연연하더라. 이때 병사 외당에 나가 양유를 불러 가로되,
 “매화는 여자라 하니 일후는 매화로 더불어 한자리에 앉지 말라.”
 하신대 양유 어찌 부모의 명령을 거역하리오.
 차설이라. 매화는 여복을 입고 내당에 거처하고, 양유는 학당에 있으며, 시서(詩書)에 뜻이 없고 다만 생각이 매화뿐이로다. 월명사창(月明紗窓)* 빈방 안에 홀로 앉아 탄식할 제,

“매화야 너는 무슨 일로 남복을 입고 나를 속였느냐. 부모의 명이 지엄하시니 뉘로 하여금 공부하며 뉘로 하여금 노잔 말가.”

이렇듯이 자탄할 제, 이때 최 씨 부인 양유의 계모라 매화의 인물 탐하여 매일 사랑하시더니 제 상처*한 남동생 있으면 혼사할 뜻이 있어 모계(謀計)를 꾸미더라. 하루는 병사 내 당에 들어와 부인 최 씨를 대하여 가로되,

“전일 상객이 이리이러하니 내두 길흉을 어찌하리오. 매화는 양유와 동갑이요, 인물이 비범하니 혼사함이 어떠하리이까.”

부인이 변색하여 가로되,

㉠“병사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시나이까. 양유는 사부 후계요, 매화는 유리결식하는 아이라, 근본도 알지 못하고 어찌 인물만 탐하리까.”

병사 옳이 여겨 가로되,

“부인의 말씀이 옳도다. ㉡일후에 장단골 가서 매화 근본을 알리라.”

- 작자 미상, 「매화전(梅花傳)」

- *만안하여: 얼굴에 가득하여.
- *상객: 관상을 보는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 관상쟁이.
- *호식: 사람이 범에게 잡아먹힘.
- *인홍불견: 언뜻 보이다가 갑자기 없어짐.
- *개탁: 봉한 편지나 서류를 뜯음.
- *월명사창: 달이 밝게 비치는 규방의 창.
- *상처: 아내의 죽음을 당함.

19.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매화는 남자 같은 목소리로 풍월을 읊어 자신의 정체를 감추었다.
- ② 양유는 여자가 남복을 입었다는 소문을 듣고 매화의 정체를 의심했다.
- ③ 상객은 매화의 관상을 봄으로써 병사가 매화의 정체를 알게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 ④ 최 씨는 양유를 아끼는 마음 때문에 매화의 근본을 핑계 삼아 둘의 혼인을 반대했다.
- ⑤ 병사는 양유에게 닥칠 불행을 피하기 위해 양유와 매화가 서로 혼인하게 하려는 마음을 품었다.

20. [A]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보 기>—

ㄱ. 양유와 매화를 자연물에 빗대 표현함으로써 두 인물 사이의 갈등을 드러내고 있다.

ㄴ. 화자의 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의 다음 행위에 동기를 부여하고 있다.

ㄷ. ‘못하다’라는 부정 표현을 반복 사용함으로써 앞으로 일어날 불행한 사건을 암시하고 있다.

ㄹ. 주인공 남성과 여성을 각각 ‘나비’와 ‘꽃’에 비유한 것에서 여성을 수동적 존재로 보았던 당대의 관습적 사고를 짐작할 수 있다.

ㅁ. ‘원앙새’가 부부를 뜻하는 상징적 소재임을 고려할 때 양유와 매화가 부부의 연을 맺지 못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21.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양유의 질문이 어리석다고 여기는 매화의 태도가 나타나 있다.
- ② ㉡: 부모의 허락을 전제로 청혼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매화의 혼인관이 드러나 있다.
- ③ ㉠: 상객이 신비한 인물임을 보여 주어 그의 예언에 대한 병사의 태도를 변화하게 한다.
- ④ ㉡: 병사가 남녀유별의 유교적 관점에 따라 내린 결정이다.
- ⑤ ㉡: 병사가 최 씨의 의견을 수용하여 내린 결정으로 양유와 매화의 혼인이 유보되는 계기가 된다.

22. <보기>는 윗글에서 서사적 흥미가 구현되는 방식을 설명한 자료이다. <보기>를 참고하여 ㉠~㉡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매화전」에서 볼 수 있는 주요한 대중 소설적 특성은 서사 진행에서 수시로 활용되고 있는 인물간 또는 인물과 독자 간의 ‘속고 속임’, ‘감추고 드러냄’이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정황을 해당사건 당사자는 모르고 주변 인물은 알고 있다든지, 사건을 주도하는 인물과 독자만 알고 사건을 겪는 인물은 모르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러한 ‘속고 속임’ 또는 ‘감추고 드러냄’의 방식은 진행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 언제쯤 그 비밀이 탄로 날지, 어떤 식으로 당사자가 알게 될지 흥미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진다.

- ① ㉠를 통해 매화가 감추려는 사실을 양유는 모르고 있지만 독자는 알고 있겠군.
- ② ㉡에서 탄로 날 뻔한 비밀이 드러나지 않게 되면서 서사적 흥미가 강화되겠군.
- ③ ㉢는 병사는 알고 있는 사실을 상객이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발화이겠군.
- ④ ㉣는 양유와 매화, 독자는 알고 있는 사실을 병사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나온 발화이겠군.
- ⑤ ㉤에서 부인 최 씨가 감추려는 사실을 독자는 알고 있지만 병사는 모르고 있겠군.

[23~2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이때 낭자, 연심이 잡혀갔던 말을 듣고 신세를 자탄하더니 뜻밖에 관비 십여 명이 나와 잡아다가 계단 아래에 엎드리니, 원수 창문을 열고 낭자의 상을 보니 낮이 익은 듯하고 심신이 비감하여 자세히 보니, 의상은 남루하나 기생(妓生) 되기로 마음먹을 것 같지 않고 천인 자식 아깝도다.

원수가 소리를 나직이 하여 낭자더러 말하기를,

“거동을 보니 천인 자식이 아니요, 여자의 말을 들었거니와 수절을 한다 하니 뉘 집 자손이며 낭자는 누구건대 청춘소년에 수절을 하며, 무슨 일로 저리 되어 관비의 양여자*가 되었는지 진정을 숨겨 꺼리지 말고 날더러 이르면 알 일이 있으리라. 말을 자세히 하라.”

하니, 이때 낭자 계단 아래에 엎드리어 원수의 말을 들으며 낭군과 이별할 때 하직하고 가던 말이 두 귀에 쟁쟁하여 일본도 다름이 없는지라.

낭자 전일은 도망하여 왔기로 성명과 거주를 속였더니, 마음이 자연 비감하여 진정으로 여쭙오되,

[A] “소녀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골 월계춘 사는 강 승상의 무남독녀이옵더니 부친이 만 리 연경에 귀양간 유 주부를 위하여 상소하였더니, 만고역적 정한담이 충신을 모함하여 승상을 옥문관에 귀양하고 소녀의 모녀를 잡아 궁비 속공*하려 하고 금부도사와 잡아갈 제, 청수에 야간도주하여 모친은 물에 빠져 죽고 소녀도 죽으려 하더니, 영릉 관비가 외촌에 갔다 오는 길에 데리고 제집에 와 험악이 무수하되 연심의 힘을 입어 이때까지 살았으나 오늘은 이 말을 원수 전에 고하고 하릴 없이 자결코저 하나이다.”

원수 이 말을 듣고 당에 뛰어 내려서며,

“이게 웬 말인가.”

영릉 태수 바빠 불러 강 승상을 오시라 하니라.

이때 강 승상이 처자를 생각하여 잠을 못 자니, 몸이 곤하여 졸더니 뜻밖에 원수 오시란 말에 놀래어 들어오니 원수가 말하기를,

“이게 강 낭자 아니오니까. 강 낭자가 살아왔나이다.”

승상이 이 말을 듣더니 정신이 아득하여 천지가 캄캄한지

라. 원수가 이별할 때 서로 주던 신표를 내어놓고 서로 견주어 살펴보니 일호(一毫)도 의심이 없는지라. 승상이 낭자의 목을 안고 궁글며 말하기를,

“내 딸 경화야, 청수에 죽었다더니 혼백이 살아왔느냐. 꿈이냐 생시냐. 너의 낭군 유충렬이 왔으니 소식 듣고 찾아왔느냐. 우리 집이 소(沼)가 되어 양류청청(楊柳青青) 푸른 가지 빈터만 남았으니 슬픈 마음 어찌 다 진정하리.”

원수가 낭자를 보고 하는 말이며 세세정담(細細情談)을 어찌 다 기록할까.

이때 장 부인이 내동헌(內東軒)에 있다가 이 기별을 듣고 급히 나와 보니, 낭자 고부지례(姑婦之禮)로 문안하고 살아난 말씀을 자세히 하니 장 부인이 손을 잡고 말하기를,

“세상 사람이 고생이 많다 하나 우리 고부 같을쏘냐.”

이때 낭자 데려간 관비는 혼백이 상천(上天)하고 간장이 녹는 듯, 원수 동헌에 높이 앉아 관비를 잡아들여 죄를 헤아려 묻기를,

“너를 죽일 것이로되, 너 같은 천기(賤妓) 년이 사람을 알아볼쏘냐. 청수에 가 낭자 구한 일로 풀어 주니 덕인 줄 알라”

연심을 불러 무수히 치사하고 보내려 하니 낭자 곁에 앉았다 하는 말이,

“연심은 나와 백년 은인이니 일시 치사뿐 아니라 평생을 함께 지내고저 하니 황성으로 데려가사이다.”

원수 그 말을 옳이 여겨 연심을 불러,

“부인을 착실히 모시라.”

연심이 황공하여 하더라.

원수가 전후사연을 낱낱이 기록하여 나라에 장계하고 길을 떠나올새 장 부인은 금덩*을 타고, 강 낭자와 조 낭자는 옥교를 타고 좌우로 모시고, 강 승상은 수레 타고 오국 사신이 모셨는데, 원수는 일광주 용린갑에 장성검을 들고 대완마(大宛馬) 위에 높이 앉아 오마대로 행군하여 완완히 나오니, 그 거동과 그 영화는 천고에 처음이라.

계양역을 지내어 청수 가에 다다르니 소 부인 죽던 곳이라. 원수가 승상을 위하여 영릉 태수 바빠 불러 제물을 장만하여 승상을 주인 삼고 조 낭자는 집사 되어, 원수는 축관(祝官) 되고 축문을 읽으며 통곡하는 말이 회수에서 모친 제사할 때와 다름없더라.

제를 파한 후에 행군하여 올라올 제, 이때 천자와 황태후며 연왕과 조정에서 총렬을 가달국에 보내고 주야 생각하며 장 부인을 찾아오는가 하여 일야(日夜) 한탄하더니, 뜻밖에 원수의 장계를 보고 즐거운 마음 측량없으며 장안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각각 자식을 보려 하고 다투어 나오더라.

천자와 태후와 연왕이 백 리 밖에 나와 맞을새, 원수의 위엄을 보니 서천 삼십육 도며 남만 오국이며 금은예단과 일등 미색들이 차례로 말을 타고 오국 사신이 선봉 되어 낭자하게 들어오고 그 가운데 금덩 옥교 떠오는데, 강 낭자는 좌편이요, 조 낭자는 우편이라. 좌우 푸른 깃발 곁었는데 수놓은 비단으로 만든 양산(陽傘)대는 반공에 솟았다.

강 승상이 수레 위에 높이 앉아 오며 군사 전후에 나열하고 그 뒤에 따르는 이 십장 홍모 사명기는 한가운데 세워 오고, 용이 그려진 기 봉황이 그려진 기 대장기며 깃발과 창검, 삼천 병마 전후에 대열을 짓고, 승전의 북소리와 행군의 북소리는 원근 산천에 진동하며, 도원수는 일광주 용린갑에 장성 검 높이 들고 천사마 비껴 타고 황룡수를 거스르고 봉의 눈을 반만 떠서 군사를 재촉하니, 웅장한 거동은 일대 장관이요, 천추에 표문(表文)이라.

이때 장안 만민이 남적에게 잡혀갔던 며느리며 딸이며 동생들이 본국에 돌아온단 말을 듣고 호산대 십 리 뜰에 빈틈 없이 마주 나와 각각 만나 옥수(玉手) 나삼(羅衫) 부여잡고 그리던 그 정을 못내 즐겨 하여 울음소리 웃음소리 반공에 뒤섞이어 호산대가 떠나갈 듯, 원수를 치사하고 장 부인을 치사하는 소리 낭자하여 요란하고, 금산성 아래 다다르니 천자와 황태후 옥련(玉輦)*에서 바삐 내려 장막 밖에 나서니, 원수 갑주를 갖추고 군의 예로 헌신하니 천자와 태후 원수의 손을 잡고 못내 치사하며 말하기를,

[B] “과인의 수족을 만리타국에 보내고 주야 염려하더니 이렇듯이 무사히 돌아오니 즐거운 마음 어찌 다 칭찬하며, 회수에 죽은 모친 데려온다 하니 만고에 없는 일이며, 옥문관에 강 승상과 청수에 죽은 강 낭자를 살려 오니 천추에 드문 일이라. 그대의 은혜는 백골난망이라. 그 말이야 어찌 다 하리오.”

황태후 원수를 치사한 후에 강 승상을 부르시니 강 승상이 바삐 들어와 땅에 엎드리니, 천자 내려와 승상의 손을 잡고 위로하기를,

“과인이 불명하여 역적의 말을 듣고 충신을 먼 곳에 보냈으니 무슨 면목으로 경을 대면하리오. 그러하나 지난 일은 물론(勿論)하오.” 이때 황태후 승상을 보고 하시는 말씀이야 어찌 다 말로 하리.

- 작자 미상, 「유충렬전(劉忠烈傳)」

*양여자: 양녀(養女). 수양딸.

*궁비 속궁: 죄인의 아내나 딸 등을 관아의 노비로 넘김.

*금덩: 황금으로 호화롭게 장식한 가마.

*옥련: 왕이 거동할 때 타고 다니던 가마

23.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에서는 앞일을 추측하며 자신의 우려를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과거에 일어난 일을 바탕으로 자신의 확신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에서는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하며 자신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고 있고, [B]에서는 고사를 인용하며 상대방에 대한 신뢰를 드러내고 있다.
- ③ [A]에서는 자신의 과거를 요약적으로 진술하며 자신의 요청을 전달하고 있고, [B]에서는 상대방의 과거 행적을 근거로 상대방의 요청을 수용하고 있다.

- ④ [A]에서는 구체적 장소와 인물을 열거하며 자신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고 있고, [B]에서는 구체적 장소와 인물을 언급하며 상대방에 대한 고마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에서는 비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우호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고, [B]에서는 물음의 방식을 활용하여 상대방에 대한 자신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24. 윗글의 인물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연심은 강 낭자의 조력자로, 유충렬을 만나기까지 강 낭자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도왔다.
- ② 영릉 관비는 강 낭자의 양어머니로, 강 낭자를 구해 준 후 집으로 데려와 험하게 대하였다.
- ③ 장 부인은 강 낭자의 시어머니로, 자신과 마찬가지로 고통을 겪은 강 낭자를 위로하고 있다.
- ④ 강 승상은 강 낭자의 아버지로, 정한담의 모함으로 귀양 간 후 강 낭자가 청수에서 죽음을 맞이했다고 믿고 있었다.
- ⑤ 유충렬은 강 낭자의 남편으로, 강 낭자와 이별할 때 주고받았던 신표를 본 후 강 낭자가 자신의 부인임을 인지할 수 있었다.

25.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유충렬전」에서는 유충렬의 영웅적 행위뿐만 아니라 주인공이 겪는 가족의 분리와 재회 과정을 제시하며 국가의 위기와 전란(戰亂)으로 인해 고통을 겪은 우리 민족의 고난과 이에 맞서는 민중의 꿈과 복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유충렬과 그의 가족이 겪는 고통은 당시 우리 민중이 겪었던 경험에 근거한 것으로,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離散)과 그 고통의 실체는 상하층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의미한다. 한편 이 작품에서 이산 후 재회하는 가족들의 범위는 유충렬의 가족에서 그 주변으로 점차 확대되는데, 이를 통해 작가는 가족의 문제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특수한 것이 아닌, 모든 사람에게 두루 해당하는 보편적인 문제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 ① 가달국으로 떠난 유충렬이 헤어졌던 모친과 장인, 부인 등과 만나는 것은 주인공이 분리되었던 가족과 재회하는 과정에 해당하겠군.
- ② 유충렬과 헤어진 후 관비의 양녀가 되어 고통을 겪는 강 낭자의 모습을 통해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해 민중이 겪어야 했던 고통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유충렬의 귀환 소식을 듣고 자신들의 가족을 보기 위해 다투어 나오는 장안 백성의 모습을 통해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해 이산의 고통을 겪은 민중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천자가 가족과 함께 돌아온 유충렬을 치하하면서 건네는 말을 통해 일반 백성보다 상류층이 국가의 위기와 전란으로 인한 가족의 이산 때문에 더 큰 고통을 받았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헤어진 가족과 재회하기 위해 장안을 떠났던 유충렬의 귀환 이후 백성들이 헤어졌던 가족과 상봉하는 것은 이산 후 재회하는 가족들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군

[26~2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여봐라, 이 애 춘향아!” / 부르는 소리에 춘향이 깜짝 놀래 어,
 “무슨 소리를 그따위로 질러 사람의 정신을 놀래느냐.”
 “이 애야, 말 마라. 일이 났다.” / “일이라니 무슨 일?”
 “사또 자제 도련님이 광한루에 오셨다가 너 노는 모양 보고 불러오란 영이 났다.” / 춘향이 화를 내어,
 “내가 미친 자식이로다. 도련님이 어찌 나를 알아서 부른단 말이나. 이 자식 네가 내 말을 종달새가 삼씩까먹듯 하였나 보다.”

[A] “아니다. 내가 네 말을 할 리도 없지만 네가 그르지 내가 그르냐. 너 그른 내력을 들어 보아라. 계집아이 행실이 **그네**를 탈 양이면 네 집 후원 담장 안에 줄을 매고 타는 게 도리에 당연함이라. 광한루 멀잖고 또한 이곳을 논할진대 녹음방초승화시(綠陰芳草勝花時)라. 방초는 푸르렀는데, 앞내 버들은 초록 휘장을 두르고 뒷내 버들은 연뿔빛 휘장을 둘러 한 가지 늘어지고 또 한 가지 평퍼져 광풍을 겨워 흐늘흐늘 춤을 추는데 광한루 구경처에 그네를 매고 네가 펼 제 외씨 같은 두 발길로 백운 간(白雲間)에 노닐 적에 **붉은 치맛자락**이 펄펄, **백방사(白紡紗) 속옷** 갈래 동남풍에 펄렁펄렁, **박속 같은 네 살결**이 백운 간에 희뜩희뜩 도련님이 보시고 너를 부르실 제 내가 무슨 말을 한단 말인가. 잔말 말고 건너가자.”

춘향이 대답하되,
 “네 말이 당연하나 오늘이 단옷날이라. 비단 나뿐이라. 다른 집 처자들도 예 와서 함께 그네를 탔으되 그럴 뿐 아니라 설혹 내 말을 할지라도 내가 지금 기생이 아니니 여염집 사람을 함부로 부를 리도 없고 부른다 해도 갈 리도 없다. 당초에 내가 말을 잘못 들은 바라.”
 방자 이면에 뷰이어 광한루로 돌아와 도련님께 여쭙으니 도련님 그 말 듣고,
 “기특한 사람이로다. 말인즉 바른말이다. 다시 가 말을 하되 이리이리하여라.”
 방자 전갈을 모아 춘향에게 건너가니 그새 제집으로 돌아갔거늘 저의 집을 찾아가니 모녀간 마주 앉아 점심밥이 방장이라. 방자 들어가니, / “너 왜 또 오느냐?”

“황송하다. 도련님이 다시 전갈하시더라. ‘내가 너를 기생으로 얹어 아니라 들으니 네가 글을 잘한다기로 청하노라. 여가에 있는 처자 불러 보기 듣기에 괴이하나 의심하지 말고 잠깐 와 다녀가라.’ 하시더라.”

춘향의 너그러운 마음에 **연분**이 되려고 그러한지 홀연히 생각하니 갈 마음이 나되 모친의 뜻을 몰라 깊이 생각하여 한참 말 않고 앉았더니, 춘향 어미 썩 나앉아 정신없게 말을 하되,

“꿈이라 하는 것이 모두 허사가 아니로다. 간밤에 꿈을 꾸니 난데없는 청룡 하나 벽도지(碧桃池)에 잠겨보이거늘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 하였더니 우연한 일 아니로다. 또한 들으니 사또 자제 도련님 이름이 몽룡이라 하니 꿈 몽(夢) 자 용(龍) 자神通하게 맞추었다. 그러나저러나 양반이 부르시는데 아니 갈 수있겠느냐. 잠깐 가서 다녀오라.”

춘향이가 그제야 못 이기는 체로 겨우 일어나 광한루 건너갈 제, 대명전(大明殿) 대들보의 명매기*걸음으로, 양지(陽地) 마당의 씨암탉걸음으로, 흰모래 바다의 금자라 걸음으로, 월태화용(月態花容) 고운태도 완보로 건너갈 새 월(越)나라 서시(西施)가 토성(土城)에서 배우던 걸음으로 흐늘흐늘 건너올 제 도련님 난간에 절반만 비껴서서 완완히 바라보니 춘향이가 건너오는데 광한루

[B] 에 가까운지라. 도련님좋아라고 자세히 살펴보니 요염하고 정숙하여 월태화용이 세상에 무쌍이라. 얼굴이 조출하니 **청강(淸江)에 노는 학**이 설월(雪月)에 비친 것 같고, **흰 치아 붉은 입술**이 반개(半開)하니 별도 같고 옥도 같다. 연지를 폼은 듯, 자주 치마 고운 태도 어린 **안개 석양에 비치는 듯** 푸른 치마가 영롱하여 무늬는 은하수 물결 같다. 고운 걸음걸이 정히 옮겨 천연히 누각에 올라 부끄러이 서 있거늘 통인 불러 말하기를,
 “앉으라고 일러라.”

춘향의 고운 태도 용모 단정히 하고 앉는 거동 자세히 살펴보니 백색창파(白色滄波) 새 비 뒤에 목욕하고 앉은 제비 사람을 보고 놀라는 듯, 별로 단장한 일 없이 천연한 절대가 인이라. 아름다운 얼굴을 상대하니 구름 사이 명월이요, 붉은 입술 반개하니 연못에 떠 있는 연꽃이로다. 신선을 내 몰라도 영주(瀛州)에 놀던 선녀가 남원에 귀양살이 왔으니, 월궁(月宮)에서 모시던 선녀 벗 하나를 잃었구나. 네 얼굴 네 태도는 세상 인물 아니로다.

이때 춘향이 추파(秋波)*를 잠깐 들어 이 도령을 살펴보니 금세(今世)의 호걸이요 세상의 기이한 남자라.

이마 한가운데 높았으니 소년공명(少年功名)할 것이요, 이마며 턱이며 코와 광대뼈가 조화로우니 보국충신이 될 것이 매 마음에 **흠모하여 눈썹을 숙이고** 무릎을 단정히 하고 앉을 뿐이로다. 이 도령 하는 말이,

“성현(聖賢)도 같은 성끼리는 혼인하지 않는다 일렀으니 네 성은 무엇이며 나이는 몇 살이뇨?”

“성은 성(成)가웁고 연세(年歲)는 십육 세로소이다.” / 이 도령 거동 보소.

“허허 그 말 반갑도다. 네 연세 들어 보니 나와 동갑 이팔 이라. 성씨를 들어 보니 하늘이 정한 인연일시분명하다. 두 성씨 결합하여 좋은 연분 평생동락(平生同樂)하여 보자. 너의 부모 모두 살아 계시냐?”

“편모슬하로소이다.” / “몇 형제나 되느냐?” / “육십 세를 맞은 나의 모친 무남독녀(無男獨女) 나 하나요.”

“너도 남의 집 귀한 딸이로다. 하늘이 정하신 연분으로 우리 **둘이 만났으니** 만년락(萬年樂)을 이뤄 보자.”

춘향이 거동 보소. 고운 눈썹 찡그리며 붉은 입술 반개하여 가는 목 겨우 열어 옥성으로 여주소되,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고** 열녀는 지아비를 바꾸지 않는다고 옛글에 일렀으니, 도련님은 귀공자요

소녀는 **천한 계집**이라. 한번 정을 맡긴 연후에 인하여 버리시면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숙공방(獨宿空房)** 홀로 누워 우는 **한(恨)**은 이내 신세 내 아니면 누구일꼬? 그런 분부 마옵소서.”

- 작자 미상, 「열녀춘향수절가(烈女春香守節歌)」

*명매기: 제빛과의 여름 철새.

*추파: 이성의 관심을 끌기 위하여 은근히 보내는 눈길.

26. 윗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방자는 춘향의 부정적인 성격을 부각하여 이 도령이 춘향과 만나는 것을 말리고 있다.
- ② 이 도령은 춘향의 환심을 얻으려고 방자에게 춘향의 글재주에 대한 평판을 언급하게 한다.
- ③ 춘향은 자신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춘향 어미가 한 요청에 따라 이 도령을 만나러 가게 된다.
- ④ 춘향 어미는 자신이 꾸 꿈을 자기 나름대로 해석하여 춘향이 이 도령과 만나는 것을 우려한다.
- ⑤ 이 도령은 춘향과 자신의 성씨가 다른 것은 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나이 문제로 잠시 갈등하게 된다.

27. <보기>를 참고하여 [A], [B]를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판소리계 소설에는 판소리의 구연적 성격이 남아서 나타난다. 판소리를 공연하며 창자는 흥미로운 부분을 특별히 확대 부연하기도 하는데 이를 장면의 극대화라고 한다. 이러한 판소리 창자의 장면 극대화에 따른 장황한 사실은 하나의 범주 내에 소속될 수 있는 세부 항목들이 거의 유사한 통사 구조를 지닌 채 반복, 열거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경우 각각의 항목은 서로 물리적 혹은 개념적으로 근접해 있거나 혹은 의미상의 등가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특기할 만하다.

- ① [A]는 봄의 정경과 ‘그네’를 타는 춘향의 역동적인 모습을 두 축으로 하여 장황한 사실의 범주를 구성하고 있다.
- ② [A]의 ‘붉은 치맛자락’, ‘백방사 속옷’, ‘박속 같은 네 살결’은 색채를 동반한 외양 묘사라는 점에서 개념적으로 근접해 있다.
- ③ [B]는 여성의 걸음걸이를 여러 가지 자연물의 모습에 비유하여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을 통해 나타내고 있다.
- ④ [B]의 ‘흰 치아’와 ‘붉은 입술’은 여성의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범주 안에 소속된 세부 항목들로서 물리적으로 근접해 있다.
- ⑤ [B]의 ‘청강에 노는 학’과 ‘안개 석양에 비치는 듯’은 춘향의 화려한 옷차림에 대한 비유적 묘사로서 의미상의 등가를 이루고 있다.

28.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열녀춘향수절가」를 비롯하여 수많은 이본이 작품군을 이루는 「춘향전」은 이본의 수만큼이나 주제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이는 대체로 여성의 정절에 대한 강조, 남녀 간의 아름다운 사랑, 지배 계층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서민의 항거, 민중의 신분 상승 욕구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주제의 다양성은 「춘향전」을 수용하는 계층의 성격에 힘입은 바가 크다. 하층민들은 천민인 춘향이 신분적 한계를 극복하는 모습에서 대리 만족을 얻을 수 있었고, 양반들은 유교적 봉건 윤리에 부합하는 춘향의 언행에 공감할 수 있었던 것이다.

- ① 춘향이 이 도령과 ‘둘이 만나 서로 호감을 키워 가는 것’에서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주제 의식을 다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춘향이 ‘천한 계집’이라는 신분적 한계를 넘어 이 도령과 ‘연분’을 이루어 가는 모습에서 하층민들은 대리 만족을 느낄 수 있었겠군.
- ③ 춘향이 이 도령을 ‘흠모하’면서도 ‘눈썹을 숙이고’ 앉아 있기만 한 데에서 지배 계층의 부당한 요구에 항거하는 모습을 엿볼 수 있군.
- ④ 춘향이 ‘충신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고 한 말은 유교적 봉건 윤리에 부합하였으므로 양반 계층으로부터 공감을 얻을 수 있었겠군.
- ⑤ 춘향이 이별의 상황을 가정하여 ‘일편단심 이내 마음’, ‘독숙공방 홀로 누워 우는 한’을 언급한 것에서 여성의 정절이 강조되고 있음을 알 수 있군.

[29~3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평양 김 진사의 딸 채봉은 아버지가 서울로 간 사이 이웃의 선비 장필성과 우연히 만나 혼약을 맺는다. 서울에서 김 진사는 허 판서에게 돈과 딸을 주기로 하고 관직을 얻지만, 채봉은 아버지의 뜻에 따르지 않고 도망한다. 한편 김 진사는 돈을 준비해 가던 길에 화적의 습격을 받아 재산을 모두 잃고 만다. 채봉은 아버지를 위해 몸값을 받고 기생 송이로 살아가다가, 이 감사의 눈에 띄어 관아로 일하러 오게 된다.

아득한 정신은 기러기 소리를 따라 떨어지고 몸을 책상머리에 엮드렸는데 깜빡 잠이 든다. 주사야몽 꿈이 되었는지, 꿈속에서 송이는 장주의 나비같이 두 날개를 펼치고 바람을 따라 하늘에 떠다니며 사면을 살핀다.

오매불망하던 장필성이 적막공방에서 혼자 전날의 답장 글을 꺼내 놓고 보며 **울고 또 울며** 보고 전전반측(輾轉反側) 누워 있기에, 달려 들어가 마주 붙들고 운다. 꿈 가운데 우는 소리가 잠꼬대가 되어 아주 내쳐 울음이 된다.

[A] 사람이 늙으면 누구나 잠이 없는 법이다. 이때 이 감사는 나이가 팔십여 세일 뿐 아니라, 일도(一道) 방백(方伯)*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어떻게 하면 백성의 원망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국은(國恩)에 보답할까 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갑자기 송이가 있는 방 쪽에서 **흐느껴 우는 소리가** 들려와 깜짝 놀란다.

속으로 짐작하되,

‘지금 송이의 나이가 십팔 세라. **분명 무슨 사정이 있어** 저러나 보다.’

하고, 가만히 나와 본다.

송이가 남창을 열고 책상머리에 누웠는데 불을 켜 놓고 책상 위에 무엇을 써서 펼쳐 놓았다. 이상한 생각이 들어 가만히 들어가 주지(周紙)를 펼치고 보니, 「추풍감별곡」이라.

이 감사는 그 글을 대강 보고는 손으로 송이를 흔들며 깨운다. 송이가 깜짝 놀라 눈을 떠 보니 이 감사다.

대경실색(大驚失色)해 일어선다.

이 감사가 종이를 맡아 들고,

“송이야, 놀라지 마라. 비록 상하지분(上下之分) 있으나 내가 너를 친딸이나 다름없이 귀히 여기고 있으니, 무슨 사정이 있거든 내게 말하면 좋겠구나. 오늘 심중에 미한(微恨)*한 일을 다 말하여라. 이 자식아, 나는 너를 딸같이 생각하는데 너는 나를 아버지가 생각지 않고 이 같은 원한을 가지고도 말을 안 하고 있던 말이냐.”

①송이는 당황해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겨우 입을 연다.

“소녀의 죄가 만사무석(萬死無惜)*입니다.”

이 감사가 허허 웃으며,

“내가 너의 소회를 듣고자 하니, 마음에 있는 대로 다 말하여라.”

송이가 한출침배(汗出沾背)*하고 몸이 떨려 말을 못 하고서 있으니 감사가 또 말을 재촉한다.

“이처럼 물어보시니 어찌 감히 기망하겠습니까?”

하고, 눈물을 닦고 두 손을 모아 단정히 선다. 그리고 당초에 후원에서 장필성과 글을 화답하던 일과, 그 모친이 장 씨를 불러 혼인을 약속한 일, 김 진사가 서울로 올라가서 벼슬을 구하다가 허 판서와 관계가 된 일이며, 허 판서가 저를 별실로 달라는 것을 김 진사는 허락하였으나 저는 장 씨와의 약속을 지키느라고 만리교에서 도망한 일, 그 후 모친이 찾아 내려와서 몸을 팔아 돈을 주어 올려 보내고, 기생이 된 후에도 장 씨를 잊지 않고 글을 써 해답할 사람을 구해 장 씨를 다시 만나 몸을 허락한 일 등을 다 말한다.

“대감의 하늘 같은 은혜는 결코 보은해도 잊지 못하겠나이다.”

하며 엮드려 운다.

갑자기 송이의 등을 어루만지며,

“송이야, 송이야, 울지 마라. 네 사정이 그런 줄 알지 못했구나. 그러나 오늘에야 알게 되었으니 어찌 네 소원을 못 풀어 주겠느냐. 이제 보니 장필성도 사정이 있어 이방(吏房)으로 들어온 것이로구나. 내일은 장필성을 불러 네가 볼 수 있게 해 주겠다.”

눈물이라 하는 것은 인정(人情)의 지극한 이슬이다. ㉠그러므로 억울하고 그리워도 눈물이 나고 좋고 반가워도 눈물이 나는 법이다. 송이는 이 감사의 말을 들으며 다시 눈물이 떨어짐을 깨닫지 못한다. 그러다가 부모 생각이 새로 나서 다시 감사에게 말을 한다.

“이렇게 보살펴 주시니 하정(下情)이 망극합니다. 그런데 소녀의 부모가 소녀로 인하여 곤경에 처했으나, 아직 소식을 모르오니 이 또한 원한입니다.”

감사가 이 말을 듣고 송이를 더욱 기특하게 여기며,

“허허, 부모를 생각하는 마음이 더욱 가상하구나. 효열지심(孝烈之心), 이른바 천심(天心)에서 나오는 말이로다. 오냐, 그것도 급히 주선해 알게 할 터이니 염려 말거라.”

하고, 안방으로 건너와 혼자 누워 ㉡송이가 주지에 쓴 「추풍감별곡」을 여러 번 보며 칭찬을 그치지 않는다.

이튿날 조조(早朝)에 이 감사가 장필성을 부르니, 필성이 속으로 생각하되,

‘사또께서 이처럼 일찍 부르시는 일이 없었는데 무슨 일로 이같이 부르시나?’

하고 이 감사께 문안한다.

이 감사가 반가운 얼굴로,

“별당으로 들어오라.”

하니, 필성이 더욱 이상하게 여기고 따라 들어간다.

감사가 방으로 불러들여 앉히고 송이를 부르니, 송이가 별당으로 들어온다. 필성과 서로 만나자 소스라치게 놀라고는 말없이 마주 앉으니, 이른바 양인심사양인지(兩人心事兩人知)*라. ㉢감사의 앞이라 감히 말을 못 하니 그 곤란한 지경이 어떠할까.

이 감사가 껄껄 웃고 필성을 보며,

“필성아, 네가 송이를 보기 위해 이방의 천역(賤役)을 자원

하고 들어온 지가 예닐곱 달이 되어도 못 보다가 오늘에야 서로 만나 보니 어떠하냐?”

㉔ 필성이 더욱 놀라 어찌할 줄을 모르다가 일어서 절을 한다.

- 작자 미상, 「채봉감별곡(彩鳳感別曲)」

*방백: 조선 시대에 둔, 각 도의 으뜸 벼슬. *미한: 조금 한스러움.

*만사무석: 만 번 죽어도 아까울 것이 없음.

*한출첨배: 몹시 부끄럽거나 무서워서 흐르는 땀이 등을 적심.

*양인심사양인지: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만 안다’는 뜻으로, 옛 시 구절을 인용한 것임.

29. [A]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필성이 ‘울고 또 울며’ 잠을 설치는 것을 송이가 꿈에서 보는 것을 통해 필성을 생각하는 마음을 알 수 있다.
- ② ‘밤이나 낮이나’ 백성과 나라를 생각하는 이 감사를 통해 훌륭한 관리로서의 면모를 알 수 있다.
- ③ 이 감사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우연히 송이의 지난 사정에 대해 알게 된다.
- ④ 송이가 꿈을 꾸며 울다가 ‘흐느껴 우는 소리’를 낸 것은 관아로 들어온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계기가 된다.
- ⑤ 이 감사는 울음소리를 예사로 넘기지 않고 ‘분명 무슨 사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에 송이의 글을 발견하게 된다.

30. ㉑~㉔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㉑: 인물의 심리에 대해 서술자가 설명하며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리고 있다.
- ② ㉒: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동정과 격려를 표현하여 독자들의 감상을 유도하고 있다.
- ③ ㉓: 등장인물의 행동을 묘사하여 인물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를 드러내고 있다.
- ④ ㉔: 독자들이 인물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유도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 ⑤ ㉔: 인물이 특정 행동을 한 이유가 되는 인물의 속마음을 연결하여 이해를 돕고 있다.

3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채봉감별곡」은 억울하게 가족과 입을 잃은 여인이 억울함을 풀게 되는 이야기로, 일종의 신원(伸冤) 모티프 소설이라고 볼 수 있다. 신원 모티프 소설은 억울한 죽음을 당한 여인이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고을 수령에게 도움을 청하고, 결국 고을 수령이 사건을 해결하여 원한을 풀어 주는 내용을 포함한 소설이다. 신원 모티프 소설의 한 부류는 사건에서 해결사 역할을 하는 고을 수령의 능력을 강조하는 유형이고, 또 한 가지 부류는 피해자 여인의 사연을 드러내는 것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를 강조하는 유형이다. 보통은 무력하게 죽음을 당한 여인이 귀신이 되어 수령을 찾아가 도움을 청하는 구조였으나, 후대로 오면서 점차 주인공 여인이 죽지 않고 사건 해결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이야기로 발전하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 ① 채봉과 채봉 가족의 사연을 통해 관직을 매매하는 당시 사회의 부조리를 알 수 있군.
- ② 기생이 된 채봉이 이 감사를 통해 처지를 벗어나게 된 것은 사건 해결 과정의 일부라 볼 수 있군.
- ③ 이 감사가 채봉의 훌륭한 인품을 알아보는 비범한 능력을 발휘한 것에서 해결사적 면모를 알 수 있군.
- ④ 이 감사가 채봉을 관아로 데려오는 내용은 여인이 수령을 찾아가는 전형적인 신원 모티프 소설과 차이가 있군.
- ⑤ 채봉이 가족을 위해 희생을 하며 사건 해결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신원 모티프 소설의 발전된 형태로 볼 수 있군.

32. <보기>는 윗글에 언급된 「추풍감별곡」의 일부이다. 윗글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구를 이해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어젯밤 바람 소리는 가을 분위기 뚜렷하다.
외로운 잠자리에서 임 그리던 꿈을 깨어
대살로 만든 창문을 반만 열고 가만히 앉아 있으니
크나큰 허공에 여름 구름은 흩어지고
천년이나 된 강산에 찬 기운이 새로워라.
(중략)

지루한 이별 생각할수록 끝이 없네.
인연이 없어 못 보는지 정이 있어 그리워하는지
인연이 없었으면 정이 있을들 어떠며
정이 없었으면 그리워한들 어떻겠는가.
연분도 없지 않고 정도 있건마는
같은 성안 남북촌에 있으면서 어이 그리 못 보시고.
(중략)

임과 이별하던 날에 나는 어찌 못 죽었나.
대천 바다 깊은 물에 풍덩 빠지련만
지금까지 산 것은 부모와 정든 임 만날지 모름이라.
하늘이 미워하고 조물주도 시기하는구나.
소리가 귀에 쟁쟁해 생각지 말자 해도 생각나고
태도가 눈에 아른거려 잊자 해도 잊기 어렵구나.
상사의 중한 병을 어찌하면 고쳐 낼꼬.

- ① ‘외로운 잠자리에서 임 그리던 꿈’은 늦은 밤까지 임을 그리워하며 눈물 흘리는 처지를 표현한 것이로군.
- ② ‘같은 성안 남북촌에 있으면서’는 이방으로 들어와 있는 장필성과 가까운 곳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못하는 처지를 형상화한 것이로군.
- ③ ‘지금까지 산 것은 부모와 정든 임 만날지 모름이라.’는 가족과 임을 다시 만나고픈 마음을 나타낸 것이로군.
- ④ ‘하늘이 미워하고 조물주도 시기하는구나.’는 자신과 가족에게 닥친 위기 상황을 운명 때문이라 여기고 있는 것을 보여 주는군.
- ⑤ ‘상사의 중한 병’은 허 판서의 별실 자리와 장필성의 아내 사이에서 갈등하는 마음을 나타낸 것이로군.

[33~3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방자 놈이 언성을 변하여 고향하고 들어가며,
“불 켜 놓고 문 열어라. 향문불량은 내 막으마.”
소리 하니 저 여인 놀라는 체 일신을 떨며 황황할 제, 방자
놈 언성 높여,
“요기롭고 고이한 년, 내 몸 하나 움쩍하면 문 앞에 신 네
짜 떠날 날이 없으니, 어느 놈과 둘이 미쳐서 두
런두런하느냐. 이 연놈을 한주먹에 쇠골 박살하리라.”
장담하고 들어오니 배비장 혼겁하여 황황하나 외문 집이라,
도망할 수 바이없어 알몸으로 이불 쓰고 여자더러 이른 말이
죽어도 문자는 쓰던 것이었다.

㉠“야장과반(夜將過半)에 내호개문(來呼開門)하니 호령자(號令者)는 수야(誰也)오?”

저 여인 답하되,

“오가출두천(吾家出頭天)이오.”

“그게 본부 낭군이오? 성품이 어떠한고?”

“성정은 제일 악남(惡男)으로 미련하기는 도척이오, 기운은 항우 같고, 술 즐기고 새암 발라 제 마음에 화를 내면 백주발검(白晝拔劍) 칼 쓰기를 흥문연 번쾌 방패 쓰듯, 상산 조자룡 장창 쓰듯, 공중용검 획 지르면 맹호라도 쇠골하고 철벽이라도 뚫어지니, 그대 말고 옛날 장비 복판 때는 범강 장달이라도 살아 보기는 틀렸으니, 불쌍한 그대 목숨 나로 하여 죽게 되니, 내가 죽고 살릴 터면 그 아니 살려 줄까.”

배비장 애걸하며 이른 말이,

“옛날 진 궁녀는 형가의 큰 주먹에 소매 잡혀 죽을 진왕 탄금(彈琴)하여 살렸으니, ㉡낭자도 의사 내어 날살리게. 제발 덕분 날 살리게.”

저 계집 흥계 꾸며 큰 자루는 언제 하여 두었던지 가로 아 구리를 벌리며,

“여기나 드시오.”

㉢“거기는 왜 들어가라오?”

“그리 들어가면 자연 살 도리가 있으니 어서 바빠 드시오.”

배비장이 절에 간 새악시 모양이라, 반색 못 하고 들어가니, 그 계집이 배비장을 자루에 담은 후 자루 끝을 모두어, 상투에 감아 매어 등잔 뒤 방구석에 세워 놓고 불 켜 놓으니, 저놈이 왈각 문을 열며 서편 들어서 사면을 둘러보더니,

“저 방구석에 세워 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알아 무얼 할라오.”

“이년아, 내가 물으면 대답을 할 것이지 반색이 무엇이냐. 주리 방망이 맛을 보고 싶어서.”

“거문고에 새 줄 달아 세웠읍네.”

저놈이 능치는 체하고,

“응 거문고여, 그러면 좀 쳐 보세.”

하며, 대꼭지로 배부른 통을 탁 치니, 배비장이 질색하여 아프기 측량없으되 참 거문고인 체하고 자루 속에서,

“둥덩둥딩.”

“그 거문고 소리 장히 웅장하고 좋다. 대현을 쳤으니 소현 또 쳐 보리라.”

넙다 코를 탁 치니,

㉠“둥덩 지덩.”

“그 거문고 이상하다. 아래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고, 위를 쳐도 위에서 소리가 나니 괴상하다.”

저 계집 대답하되,

“무식한 말 하지도 마오. 옛적 **여화씨** 적에 생황(笙簧) 오음 육률을 내실 적에 궁상각치우를 청탁(淸濁)으로 울리오니 상청음(上淸音)도 화답이랍네.”

이놈이 옹게 듣는 듯이,

“네 말이 당연하다. 세사는 금삼척(琴三尺)이요, 생애는 주일배(酒一杯)라. 사정 강상월이요, 동각 설중매라. 술 한잔 날 권하고 줄 골라라. 오늘 밤에 놀아 보자. 내 소피하고 들어오마.”

하고, 문밖에 나와 서서 기척 없이 귀를 기울이고 엿듣는다.

배비장 자루 속에서 가만한 소리로 하는 말이,

“여보오, 궤자(厥者)가 거문고를 좋아하는 수가 분명 내어 볼 듯하니, 다른 데로 나 이사 좀 시켜 주오.”

저 여인 거동 보소. 윗목에 놓인 피나무 궤를 열고,

“예나 바빠 드시오.”

배비장 궤를 보고 문자는 놓지 아니하고 쓰던 것이었다.

“체대궤소(體大櫃小)하니 하이은신(何以隱身)고?”

저 계집 하는 말이,

“그 궤가 밖으로 보기는 적사오나 속이 널러 은신할 만하니 잔말 말고 바빠 드시오.”

배비장 하릴없이 궤 문 열고 두 눈 감고 들어가니, 굽도 접도 못하여서 몸을 곱송그리고 생각하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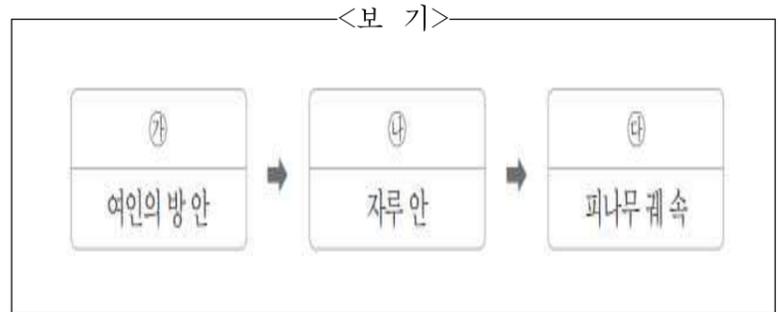
㉡“한심하고 설운지고. 이놈의 흥계를 누가 알리. 날 같은 호색 남자 궤 중에 고혼 되기로 누구를 원망하리.”

저 여인 궤 문 닫고 쇠 채우니, 함정에 든 범이요 우물에 든 고기로다. 답답 궤 중 어찌 살리. 이렇듯 자탄할 제 저놈이 다시 들어오며 하는 말이,

“아무것도 흥황 없다. 내 아까 눈이 절로 스프르 감기면서 꿈을 꾸니 **백수노인**이 나를 불러 이르되, 네 집의 거문고와 피나무 궤가 있느냐 하시기로, 내 말이 있노라 한즉, 그 노인 가로되 금신(金神)이 혈입궤중(穴入櫃中)하여 무수작란(無數作亂)하니 그 궤가 유즉여가망(有則汝家亡)이요 무즉여가흥(無則汝家興)이라. 역력히 현몽하니 저 궤를 불에 소화하리라. 짚 한 동 갖다 불 놓아라.”

- 작자 미상, 「배비장전(裵裱將傳)」

33. <보기>와 관련하여 윗글의 상황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 나, 다에 있을 때 발발한 상황은 배비장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 ② 가에서 나를 거쳐 다로 들어가며 배비장이 느끼는 위기감은 더 커진다.
- ③ 가에 있던 배비장이 나로 들어가는 것은 여인의 흥계에 빠지는 일이었다.
- ④ 가와 달리 나와 다에서 배비장은 여인의 행동을 눈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 ⑤ 가, 나와 달리 다에서 배비장은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34. ‘형가’, ‘여화씨’, ‘백수노인’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여화씨’와 ‘백수노인’은 ‘형가’와 달리 현학적 태도를 지닌 인물이다.
- ② ‘형가’와 ‘여화씨’는 ‘백수노인’과 달리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인물이다.
- ③ ‘형가’는 방자, ‘여화씨’는 여인에 대응되지만, ‘백수노인’에 대응되는 인물은 없다.
- ④ ‘백수노인’은 ‘형가’나 ‘여화씨’와 달리 지시의 이유를 드러내기 위해 제시된 인물이다.
- ⑤ ‘형가’는 여인, ‘여화씨’는 방자, ‘백수노인’은 배비장을 설득하기 위해 언급한 인물이다.

35. <보기>와 관련지어 ㉠~㉡을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인물의 회화화란 인물의 외양이나 성격 또는 인물이 처한 상황을 우스꽝스럽게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위해서 서술자는 대상의 말이나 행동, 대상이 지닌 특징을 과장하거나 축소하고 때로는 왜곡한다. 인물의 회화화를 잘 사용하면 인간 생활의 부조리나 불합리, 혹은 허위나 허세와 같은 부정적 양상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풍자적으로 드러낼 수 있다. 또한 진행되는 사건을 재미있게 전달하여 작품에 해학성을 부여할 수 있다.

- ① ㉠과 같이 어려운 문자를 쓰려고 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허위의식을 강조하고 있군.
- ② ㉡과 같이 남에게 의탁하여 문제를 해결하려는 모습을 희화화해 인물의 특징을 제시하고 있군.
- ③ ㉢과 같이 상대의 의도를 이해한 듯 질문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의 허세를 부각하고 있군.
- ④ ㉣과 같이 우스꽝스러운 소리를 내며 위기를 벗어나려는 모습을 통해 작품에 해학성을 부여하고 있군.
- ⑤ ㉤과 같이 탄식만 하며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모습을 통해 인물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36~38]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천지왕이 가만히 들어 보니 소성 옥황태자의 태도가 너무나 완강하여 오히려 지상 세계의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저토록 강한 의지를 가진 저 아들이 방향만 제대로 잡아 주면 대성 옥황태자보다 훨씬 의욕적으로 일을 처리할 것만 같았다. 그러나,

㉠“사람의 몸에서 옷을 벗기는 것은 강한 바람이 아니라 오히려 따스한 바람이 아니겠는가?”

하고 생각을 하였다. 천지왕은 미처 결정을 하지 못하고 이 문제를 총맹 부인에게 상의하였다. 마침 총맹 부인이 천지왕에게 해결책을 마련해 주니 천지왕은 두 아들에게 세 가지 업을 부여하고 누가 현명하게 처리하는지를 시험하여 그 아들에게 이승의 일을 맡기기로 하였다. 천지왕은 두 형제를 불러 인(仁), 용(用), 지(知) 세 단어를 주고는 인간들을 도륙하며 큰 위협이 되고 있는 두 마리의 흑룡을 처리하는 방법을 알아 오도록 하였다.

“이러한 과제를 너희에게 내려 주고 삼 일 동안 말미를 주니 해결 방법을 찾아오라.”

두 형제는 삼 일이 지나자 마침내 천지왕의 앞에 나아가 흑룡을 처리한 문제 해결 방법을 고하게 되었다.

먼저 소성 옥황태자가 자신만만하게 이르기를,
 “천상천하의 최고신이시며 지고의 모든 힘을 지니신 아버지여. 저는 우선 흑룡의 성질을 잘 파악하여 어디가 약점인지 알아내고(知), 무슨 무기를 쓸 것인지(用)를 결정하여 번개와 같이 그 괴물을 처치함으로써 아버지의 통치가 인(仁)의 시대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이 말을 듣고 천지왕이 만리경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니 흑룡으로부터 목숨을 부지한 곳의 인간들이 소성 옥황태자의 은혜를 칭송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이에 소성 옥황태자를 높이 칭찬하고 다시 대성 옥황태자에게 물었다.

“너는 어떤 해결 방법을 생각하였느냐?”
 “예. 저는 장차 화룡이 인간 세상의 모든 액운을 막아 내는 큰 인물로 사용될 수 있다(用)고 판단하여 화룡의 아픈 곳과 그렇게 사람들을 해하는 이유를 찾아내어(知) 그를 아버지의 나라에서 순종하고 충성을 다하는 신하로

만들어서 장차 아버지의 어지심과 인자하심이 천상천하에 가득하고 태평성대를 여시는 데(仁) 작은 보탬이 되도록 하였나이다.”

천지왕은 얼굴에 미소를 짓고 고개를 끄덕이셨다. 만리경을 열어 세상을 바라보니 삼라만상이 모두 천지왕의 인자하심과 성스러움을 찬양하고 천지왕의 공덕을 찬양하니 사해에 웃음이 가득하였다.

“옳거니. 그래 대성 옥황태자 너의 해결 방법이 참 곱기도 하였도다. 너의 현명함이 천하를 구하는구나.”

다 이긴 것으로 생각했던 소성 옥황태자는 표정이 심하게 일그러지고 창피한 마음에 자리를 뜨고 말았다.

천지왕은 대성 옥황태자를 물리시고 총맹 부인과 마주하여 자신의 결정을 말한다. 소성 옥황태자는 자기가 이번에 꼭 이승의 통치자가 되고 싶은 욕심에 아버지와 어미의 이야기를 엿듣게 되었다. 그러나 총맹 부인 역시 대성 옥황태자 편을 들자 소성 옥황태자는 음모를 꾸미게 된다.

어느 날 소성 옥황태자는 지상의 서역 끝 뜨거운 사막에 살고 있는 독성이 매우 강한 뱀을 찾아가서는 뱀과 은밀한 밀약을 한다.

“내가 만약 나의 청을 들어 대성 옥황태자의 숨을 끊어 놓는다면 내 너에게 숲을 다스리는 권능을 주리라.”

말을 들은 뱀은 크게 동하여 기꺼이 이 일을 맡아 한다. 깊은 밤이 되자 소성 옥황태자는 뱀에게 명령하여 대성 옥황태자의 침실에 몰래 들어가게 한다. 뱀은 곧히 잠들어 있는 대성 옥황태자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서는,

“내 주인이신 소성 옥황태자께서 나를 없애 나라의 액운을 막고자 함이니 목숨을 아끼지 말고 선뜻 내놓거라.”

하며 가슴을 물어 독을 퍼트린다.

크게 괴로워하며 죽어 가던 대성 옥황태자는 어깨에 있는 청색별을 뽑아 들고 뱀의 몸을 쳐 낸다. 뱀은 다리가 잘리고 겨우 침실을 빠져나와 목숨을 부지하여 숲으로 숨었다. 다음 날 대성 옥황태자의 죽음을 안 천지왕은 그 아픔이 오장육부를 오려 내는 통증과도 같았다. 천지왕은 그 슬픔을 누르고 지붕 위로 천군신장을 오르케 하여 옥황상제와 대천제에게 아들의 죽음을 고하게 하시고 천하대장군과 지하대장군을 호출하여 사건 조사를 명하였다. 이때 낸 법으로 사람이 죽으면 하늘에 망자의 혼을 세 번 부르면서 걸옷을 흔들게 하였다. 한편 대성 옥황태자의 인덕에 감화하여 순종하게 된 흑룡은 자신이 향후 모든 인간의 위협을 지켜주는 수호자가 되겠다고 대성 옥황태자에게 약속한다. 이때 낸 법으로 지상의 인간들은 태어나면 자신들의 길흉화복을 청룡과 흑룡에게 의탁하는 법이 생겨나게 되었다. 배후 인물은 가려진 채 뱀의 소행으로 결론나자 천지왕께서는 모든 뱀에게 चु든 चु든, 습하건 건조한 곳이건 평생 땅을 기어 다니게 하시고 일 년에 한 번씩 허물을 벗으면서 고통을 맛보게 하시었다. 이때부터 뱀은 두 다리로 걷지 못하고 늘 몸통으로 땅을 비벼 가며 움직이는 법이 생겨났다.

천지왕께서는 대성 옥황태자를 대신하여 소성 옥황태자에

게 이승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는 임무를 내리시고 소별 왕으로 명하시었다. 죽은 대성 옥황태자에게는 대별왕으로 봉하시고 죽은 자들을 다스리는 저승의 왕으로 명하시었다.

- 작자 미상, 「천지왕본(天地王本)풀이」

36.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와 [B]를 통해 두 아들 모두 인간을 위협하는 흑룡을 처리하는 데 성공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A]와 [B]에서 두 아들이 '인, 용, 지'라는 세 단어를 활용하라는 조건을 달성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③ [A]에서 '흑룡'은 처치해야 할 괴물로 표현되었음을, [B]에서 '흑룡(화룡)'은 충신이 될 존재로 받아들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④ [A]에 나타난 과정이 '인'이나 '지'보다 '용'을 중시한 것이라면, [B]에 나타난 과정은 '용'이나 '지'보다 '인'을 중시한 것이다.
- ⑤ 천지왕과 총맹 부인이 대성 옥황태자를 선택하려고 한 것을 볼 때, [B]에 대한 두 사람의 평가가 [A]에 대한 평가보다 높았다.

37. <보기>를 바탕으로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천지왕본풀이」 속에 포함된 화소(話素)의 성격을 나누어 보면, 각 화소는 신화의 주요 기능인 존재론적 기능, 인식론적 기능, 가치론적 기능을 공유하고 있다. 존재론적 기능이 우주의 기원과 각종 천체 및 만물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화소와 관련된다면, 인식론적 기능은 지식의 본질, 신념의 합리성과 정당성 등을 밝혀 주는 부분으로 지식에 눈을 뜨거나 문제 해결의 합리성을 드러내는 화소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한편 가치론적 기능은 사회가 마땅히 추구해야 할 규범과 윤리 도덕 등을 언급하는 화소에서 확인된다.

- ① 대성 옥황태자와 소성 옥황태자의 능력을 시험하는 화소는 문제의 해결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기능을 하고 있군.
- ② 형제에게 해를 가한 소성 옥황태자가 이승을 다스리게 되는 화소는 가족 윤리보다 사회 규범의 중요성을 부각한다는 점에서 가치론적 기능을 하고 있군.
- ③ 대성 옥황태자에게 감화를 받은 흑룡이 인간의 수호자가 되는 화소는 인간이 길흉화복을 다른 대상에 의탁하는 까닭을 설명해 준다는 점에서 인식론적 기능을 하고 있군.
- ④ 뱀이 천지왕으로부터 벌을 받게 되는 화소는 뱀이 기어 다니게 된 기원을 밝히고 있다는 점에서 존재론적 기능을 하고 있군.

- ⑤ 이승의 혼란과 무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왕을 임명하는 화소는 더 살기 좋은 세상에 대한 지향을 내포한다는 점에서 가치론적 기능을 하고 있군.

38. <보기>와 관련지어 윗글의 '천지왕'이 ㉠과 같이 말한 까닭을 추측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길을 가는 나그네를 두고 '해님'과 '바람'이 누가 '나그네'의 외투를 벗길 수 있는지 내기를 했다. 먼저 바람이 나서서 입김을 세계 붙였다. 그러자 나그네는 춥다며 오히려 외투를 여뒀다. 이번에는 해님이 나섰다. 햇볕을 강하게 내리쬐자 나그네는 너무 덥다며 외투를 벗었다.

- ① <보기>의 '바람'처럼 강한 면모를 지닌 소성 옥황태자의 의욕을 일단 꺾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② 대성 옥황태자에 대한 미련 때문에, <보기>의 '해님' 같은 소성 옥황태자의 장점을 놓칠까 우려하고 있다.
- ③ 소성 옥황태자를 다그치고 있는 자신으로 인해, 그가 <보기>의 '나그네'처럼 마음을 닫아 버릴까 염려하고 있다.
- ④ <보기>의 '해님'처럼 따스한 면모를 지닌 대성 옥황태자에게 지상 세계를 맡기는 것이 낫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다.
- ⑤ 앞으로 두 아들을 대할 때, <보기>의 '해님'과 같은 방법이 아니라 '바람'과 같은 방법을 쓰는 것이 낫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39~4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도사가 나장을 거느리고 금호문 밖에 나와 크게 소리쳤다.
/ “집필한 박태보*는 어디 있느냐?”
공이 여러 사람 가운데에서 일어나 말하기를, /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스스로 큰칼을 가져다 쓰고, 망건과 담뱃대를 종에게 주면서, / “이것을 가져다 모친께 드려라.”
하고 띠와 부채를 소매에 넣는데, 그 몸놀림은 편안하고 얼굴빛이 변하지 않으며 걸음걸이도 조용했다.
이인엽, 조대수, 김몽신 세 사람이 손을 잡고 말했다.
“이 무슨 때인가. 자네 어찌 혼자 담당할까. 우리도 당당히 같이 들어갈 것이라.”
박태보 공이 말하기를, / “자네들이 함께 들어갈 의가 무엇인가. 짓고 쓰기는 다 내가 한 것이라.”
하니, 세 사람이 한꺼번에 말하기를,
“원정*을 장차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제발 서로 의논하세.” / 하였으나, 박태보 공이 말했다.

“내 원정은 내가 할 것인데 어찌 의논하리오. 차라리 혼자 죽을지언정 어찌 다른 사람과 함께하리오. 내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 자네들은 염려 마시게.”

이돈이 소매를 잡고 말했다.

“태보야, 어찌 이리 경솔한가?” / 박태보 공이 소매를 떨치고 일어나 웃으며 말하기를,

“남자가 이때를 당하여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리오. 우습다. 영감의 말이여! 내가 마음을 한번 정하였으니 어찌 죽기를 무서워하리오.”

하고는 드디어 들어가니, 국문장 바깥에 있던 오두인 공과 이세화 공이 박태보 공의 오는 거동을 보고 말했다.

“슬프다! 우리는 벼슬이 높고 늙어서 죽게 되었으니 한번 죽어서 나라에 은혜를 갚음이 후회될 것 없지만, 자네는 젊고 명망이 있으며 집에 두 노친이 계시니 헛
[A] 되이 죽는 의리가 우리와는 다르다. 그러니 자네, 이제 원정을 잘하여 다 우리에게 미루고 살 도리를 생각하시게. 그리하지 않으면 먼치 못할 것이니, 원정을 같이 의논함이 어떠한가?”

박태보 공이 이렇게 대답했다.

“영감께서는 그런 말씀 마옵소서. 제 원정을 어찌 영감의 말씀대로 하겠습니까. 사람이 되어 이 자리에 이르러 죽을 따름이지 어찌 기교를 짜겠습니까. 제 마음은 이미 정하였으니 어찌 변하겠습니까.”

박태보 공의 말씀과 기운이 더욱 강개하고 정신은 더욱 강렬하니, 누군들 슬퍼하지 않으며 이상히 여기지 않겠는가.

이윽고 들어가니 문랑이 상 아래에 서서 큰 소리로 문목을 읽었다.

“상소 중에 ‘핑계하여 거짓말을 꾸민다.’ 한 것은 무슨 말이며, ‘설사 내전께서 과실이 있은들 꿈을 말한 것이니 말실수에 불과하고 실제 일로 드러난 것이 아닌데 적발하여 망극한 죄명을 씌운다.’ 한 것은 무슨 말이며, ‘서로 다투고 서로 핍박한다.’는 것은 무슨 말이며, ‘한 몸의 사심을 따른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며, 비망기로 하교하신 것이 확실한데도 이렇게 꾸민 것은 무슨 까닭이나? 누가 가르치더냐? 이런 흉한 말을 어디에서 들었느냐? 이러한 흉한 상소는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상소를 주장하여 임금을 배반하고 죄상이 드러난 사람을 위해 절개를 세우고자 하였느냐? 숨기지 말고 바로 아뢰라.”

문목을 다 읽으니 상이 나장으로 하여금 어깨에 몽둥이를 가로지르고 엄히 물으라 하였다. 박태보 공이 옷깃을 여미고 기운을 낮추어 소리를 조용히 하여 아뢰었다.

“이미 문목으로 물으시니 바로 아뢰겠습니다.”

상이 말하였다.

“네가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는 부도(不道)를 하였느냐? 네가 어찌 임금이 한 말을 허망하다고 하느냐?”

“신이 어찌 임금을 업신여기겠습니까. 그렇지만 신은 내전께서 비록 언어에 과실이 있으나 적발하여 큰 죄를 주심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향간에 처와 첩을

둘 다 둔 사람 중에 가장이 치우쳐서 집안 다스리기를
[B] 잘못하여 가정의 도를 무너뜨린 이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후궁을 매우 사랑하시니 혹 그러하실까 싶습니다. 신이 어찌 감히 왕의 말을 허망하다고 하오리까.”

이렇게 문목에 대한 대답을 두어 가지 했는데, 박태보 공이 조금도 무서워하는 기색이 없는 것을 보고는 상이 더욱 크게 노하여 죄인을 어좌 가까이 오게 하고는 크게 소리쳐 하교하였다.

“네가 어찌 감히 이런 말을 하느냐. 내가 첩을 총애하다가 참소를 믿어서 죄 없는 내전을 폐한다는 말이나. 그러면 나는 죄 없는 자를 고발한 이광한같이 되는구나.”

상이 또 말하였다.

“조그만 놈이, 전에도 나를 거스르고 힘들게 하던 놈이 네 놈 아니냐. 내가 너를 깊이 미워하였으나 특별히 분노를 참아 네 머리를 베지 않았더니, 오늘 또 네가 나를 욕보이는구나. **간특한 부인을 위하여 이렇듯 방자하니 흉한 반역이 아니냐?**”

박태보 공이 아뢰었다.

“군신과 부자는 의가 똑같습니다. 전하께서 어찌 이런 하교를 하십니까. 임금과 아버지가 비록 같지 않지만 충과 효는 다름이 없습니다. 아버가 만일 어미를 내치면 자식 된 자로서 간하겠습니까, 순순히 들겠습니까? 이제
[C] 전하께서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을 하셔서 중궁께서 장차 기울어지게 되니 신하 된 자가 죽기를 무릅쓰고 간하여 들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찌 전하를 배반 하옵고 중궁을 위하는 것이겠습니까. 중궁을 위한 것이 곧 전하를 위한 것입니다.”

왕이 말하기를,

“이러한 독한 물건은 바로 베어도 안 될 것이 없다. 원정을 받지 않을 것이니 바로 엄한 형벌을 내리라.” 하니, 우의정 김덕원이 아뢰었다.

“원정을 받지 않고 때리기를 먼저 하면 나중 폐단이 매우 클 것입니다.”

상이 말하기를,

“이런 흉물을 두고 문초하여 진술 받기를 어찌 기다리겠는가. 어서 엄하게 형벌을 가하라.”

하고, 판의금부사를 불러 하교하였다.

- 작자 미상, 「박태보전(朴泰輔傳)」

*박태보: 조선 숙종 때의 문신으로 사간원 정언, 이천 현감, 파주 목사 등을 지냄.

*원정(原情): 사정을 하소연함. *문목: 죄인을 신문하는 조목.

39. 윗글의 서술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화를 통해 인물 사이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 ② 서술자가 개입하여 인물에 대해 주관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위에 대한 묘사를 통해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주인공이 이동하는 공간의 변화에 따라 사건의 긴박감이 강화되고 있다.
- ⑤ 역순행적 서술을 통해 주요 사건의 원인보다 결과가 더 부각되도록 하고 있다.

40. [A]~[C]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에서는 상대방의 개인적인 처지를 이유로 하여 상대방이 취하려는 행위를 만류하고 있다.
- ② [B]에서는 실제로 일어난 부정할 일을 상대방도 저지르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 ③ [C]에서는 자신의 판단이 윤리적으로 정당함을 밝히면서 상대방의 생각이 오해임을 주장하고 있다.
- ④ [A]와 [B]에서는 모두 사회적 제도가 가진 논리적 모순을 지적하여 새로운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다.
- ⑤ [B]와 [C]에서는 모두 가정 안에서 지켜져야 할 윤리가 임금에게도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41.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박태보전」은 실제의 역사적 인물과 사건을 소재로 삼아 소설로 형상화한 작품이다. 사대부 계층이 겪는 정체성의 위기와 혼돈의 시기에 사대부로서의 올바른 정체성을 모색하여 확립하고자 하는 의도에 따라 지어졌으므로 작품 속에서 주인공 박태보는 개인이나 가족의 차원에서 머물지 않고, 집단이 추구하는 가치를 표상하는 사회적 인물로 이상화되어 나타난다. 이에 임금의 불의한 행위에 맞서 충간을 멈추지 않으면서 임금의 진노 앞에서도 문제를 제기하는 박태보의 모습은 충신의 진정한 도리를 밝힌 것이라 할 수 있다.

- ① ‘남자가 이때를 당하여 어찌 죽기를 두려워하리오.’에서 개인 차원을 넘어 집단적 가치를 표상하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 ② ‘간특한 부인을 위하여 이렇듯 방자하니 흉한 반역’에서 사대부들이 혼돈의 시기에 정체성의 위기를 겪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③ ‘전에 없던 잘못된 일을 하셔서’에서 주인공 박태보가 충신으로서 임금의 불의한 행위에 맞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④ ‘신하 된 자가 죽기를 무릅쓰고 간하여 들으시기를 기다리는 것’에서 주인공이 충신의 진정한 도리를 밝히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 ⑤ ‘이런 흉물을 두고 문초하여 진술 받기를 어찌 기다리겠는가.’에서 멈추지 않는 신하의 충간을 수용하지 못하고 진노하는 임금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